



[산업] 현대차 아반떼 N라인 렌더링 공개 06



Economy

코스피	2158.88 (-5.29)	코스닥	765.96 (+6.80)
금리 (2년)	0.845 (+0.002)	환율 (USD)	1195.50 (-0.20) (8일)

유은혜 콕 찌른 “적립금 1000억 넘어 등록금 반환 대학” 어디?

# 흥대 7570억 최고... 연세·이대 등 20곳 수천억대

100억 이상 적립 대학 87곳  
누적 적립금 총 7조7220억

유 장관 “재난상황 고통분담  
추경 지원시 자구노력 반영”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3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누적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적립금으로 등록금 반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을 쌓아둔 대학이 어딘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은혜 장관은 지난 7일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대학이 ‘미래대학 운영을 위한 것’이라며 별도 사용을 꺼리는 적립금을 코로나 19라는 재난적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면서 “특히 적립금이 1000억 원 이상인 대학은 이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2019년 회계연도 사립대학 교비 회계 결산서에서 ‘사립대학 누적적립금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2월 말 기준 전체 사립대학 153개 중 1000억원이 넘는 대학이 20곳에 달했다. 이들 대부분이 서울 주요 사립대 또는 지방 대규모 사립대학이다. 누적적립금 100억원 이상 대학은 총 87교로, 전체 사립대학 153교의 56.9%를 차지했다. 이들 87교

의 총 누적적립금은 무려 7조 7220억원이다.

적립금을 가장 많이 쌓아둔 대학은 흥익대로 이 대학의 누적적립금은 7570억원에 달했다. ▲연세대(6371억원) ▲이화여대(6368억원) ▲수원대(3612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고려대(3312억원) ▲성균관대(2477억원) ▲청주대(2431억원) ▲계명대(2310억원) ▲동덕여대(2230억원) ▲숙명여대(1866억원) 순이다.

이 외에도 유 장관이 제시한 ‘적립금 보유액 1000억원 이상’ 대학은 ▲한양대(1669억원) ▲을지대(1512억원) ▲영남대(1426억원) ▲세명대(1366억원) ▲가톨릭대(1321억원) ▲대구

<누적 적립금 1000억 이상 대학>  
(단위: 억 원)

연번	대학명	누적적립금
1	흥익대	7,570
2	연세대	6,371
3	이화여대	6,368
4	수원대	3,612
5	고려대	3,312
6	성균관대	2,477
7	청주대	2,431
8	계명대	2,310
9	동덕여대	2,230
10	숙명여대	1,866
11	한양대	1,669
12	을지대	1,512
13	영남대	1,426
14	세명대	1,366
15	가톨릭대	1,321
16	대구대	1,196
17	중앙대	1,183
18	경희대	1,127
19	경남대	1,080
20	건양대	1,044

\*2020년 2월 말 기준 /대학교육연구소

대(1196억원) ▲중앙대(1183억원) ▲경희대(1127억원) ▲경남대(1080억원) ▲건양대(1044억원) 등 20곳이다. 가장 먼저 전체 재학생에게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기로 한 건국대 누적적립금은 847억원이다.

대학의 누적적립금은 기부금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이자수익, 법인 전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돈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연구·건축·장학·퇴직 등 특정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유 부총리는 특히 추경 예산 배분 시 1000억원 이상 적립금을 보유한 대학들의 경우 등록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지등 자구노력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력 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정난을 호소하는 대학 주장과 달리 적립금 규모는 등록금 반환 여력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사립대는 적립금이 약 1000억원 이상인 20여 개 사립대가 있다”며 “재난적 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최대한 자구노력을 한다고 할 때 정부 지원금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정된 재원이지만 적극적으로 자구노력을 하는 대학은 교육 질을 높이는 데 (지원금을) 조금 더 반영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등록금 반환에 나서서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대학 긴급 지원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3차 추경에서는 대학 관련 지원금 1000억원이 통과됐다.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명목의 해당 규모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요구한 2718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정 실태 조사와 등록금 반환 논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도 일부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절반 이상 대학이 등록금 반환 문제를 학생들과 논의를 해 가면서 풀어가려는 노력을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미디어 ‘2020 100세 플러스 포럼’  
**빨라지는 고령화 시대  
리스크 관리와 재테크**

메트로신문이 오는 7월 15일(수) ‘2020 100세 플러스 포럼’을 개최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의 경제는 올해도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성장 터널이 길어지면서 경기가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고령화시대 리스크 관리와 재테크’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장수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리스크 관리와 재테크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럼에선 ‘국내외 경제전망’ 기초강연과 ‘재테크 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불확실성 시대의 주식·부동산 투자전략 등 투자 노하우를 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김영의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의 국내외 경제전망을 비롯해 ‘가치투자’로 유명한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 부동산 투자전략을 제시할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리츠운용 전문가인 남궁훈 신한리츠운용 대표 등이 알토란 같은 강연을 펼칩니다.

- 행사명 : 2020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
- 주 제 : 고령화시대 리스크관리와 재테크
- 일 시 : 7월 15일(수) 14:00~17:00(VIP 티타임 13:40~14:00)
- 장 소 :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문의 및 참가 신청 :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신분증 미지참 시 입장이 제한됩니다.

metro

## ‘매일 원하는 제품을 문앞에’... 유통업계 ‘핀셋 마케팅’

언택트 시대, 프리미엄 추구  
‘월간 과자’ ‘과일 구독’ 등  
맞춤형 서비스로 고객 확보



홈플러스의 펫팬족 위한 특화 멤버십 ‘마이 펫 클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타격 입은 유통업계가 맞춤형 서비스 및 ‘핀셋 마케팅’을 통한 실적 회복에 나섰다. 구독서비스와 충성고객 확보로 재구매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유통업계는 일반적인 구독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핀셋 마케팅을 선보이며 충성고객 확보에 나섰다. 핀셋 마케팅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홍보 마케팅을 줄이는 대신 핀셋으로 꼭 짚어내는 것처

럼 타깃을 세분함으로써 특정 고객층만을 공략하는 마케팅 기법을 말한다. 유통업계에서 온라인 및 배달서비스가 흔해진 만큼 맞춤형 프리미엄 서비스로 차별

화를 피하는 것.  
◆ ‘어떤 제품이 올라?’...배달이 기다려져

코로나19 사태 이후 언택트 소비와 ‘편리미엄’(편리함+프리미엄)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이색적인 구독 및 맞춤형 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했다. 정기 배송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 할인과 각종 정보를 앞세워 고정 매출을 잡겠다는 심산이다.

구독 제품은 다양하다. 의류, 생활용품, 자동차 분야를 넘어 양말, 얼음 컵, 햄버거까지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되고 있다.

반응도 나쁘지 않다. 롯데제과의 ‘월간 과자’는 배달 구성 제

품이 바뀌어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다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선착순 200명 한정 모집 인원이 공식 당일 모두 마감됐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는 지난달부터 VIP 고객을 대상으로 식품관 제철 과일을 정기 배송해주는 과일 구독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흔치 않은 과일과 함께 과일 보관법, 먹는 법 등을 담은 과일 설명서도 함께 집 앞에 배달된다.

◆ ‘나만을 위한 서비스’  
우량 고객에게 획일적인 혜택을 주던 ‘VIP제도’는 특정 분야에 관심을 두는 고객에 맞춘 ‘핀셋 관리’로 세분됐다. 호기심을 자극

하며 ‘나만을 위한 마케팅’을 선보이는 핀셋 마케팅은 특히 가성비와 특별함 모두를 잡고 싶어하는 MZ세대에게도 어필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패션 마니아를 위한 ‘패피클럽’, 육류 마니아를 위한 ‘미트클럽’을 비롯한 7개의 무료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며 맞춤형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맞춤형 멤버십 서비스는 지난 4월 회원수가 30만 명을 넘어섰다.

유통업계가 구독 서비스와 핀셋 마케팅에 집중하는 것은 ‘록인(lock in·기존 이용 상품,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는 습성)’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정기

적으로 집앞까지 배달하는 서비스와 ‘나만을 위한’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를 받을 경우 소비자는 ‘특별함’을 느낀다. 이는 제품·서비스 만족도 상승, 그리고 재구매로 이어진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유통학회)는 “현대의 소비자들은, 특히 MZ세대는 ‘나만을 위한 제품·서비스’에 높은 가치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서 “최근 유통가에서 이뤄지는 구독 서비스 및 핀셋마케팅은 소비자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를 통해서 개인의 취향 정확히 알아맞혀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현대마케팅의 목표”라며 “이러한 유통가의 변화는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시장경제에서 바라보는 올바른 발전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 설계사·택배 등 특고직도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특수고용직〉

고용부, 관련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구체적인 적용대상 대통령령 정해  
9월 법안 제출, 연내 국회 통과 예정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추진하는 정부가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2018년 11월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부문만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10일 시행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근로



지난 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실업급여설명회에서 구직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를 포함한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추진하면서 특고를 고용보험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꼽아왔다.

개정안을 보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

한 특고를 고용보험에 적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도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킥서비스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산재보험 적용직종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플랫폼노동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토록 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토록 하되,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실직할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는다.

특히 일반 근로자와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출산전후휴가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 요건과 지급수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개정안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임시정 차관은 "금년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외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해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보장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해 산재보험료를 경감하는 근거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금값, 연일 상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 국제 금용시장에서 금값이 연일 상승하고 있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 본점에서 한 직원이 골드바를 정리하고 있다. 마켓위치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8월물 금은 온스당(31.1g) 0.9%(16.40달러) 오른 1809.90달러에 마감했다. /뉴시스

## 3억 초과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제한

금융위, 10일부터 6·17 대책 시행  
전세대출 후 아파트 구매땀 회수

오는 10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또 이날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새로 아파트를 구매하면 대출금이 회수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전세대출 규제는 10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매하고 ▲전세 대출 신청을 한 차주에 한해 적용된다.

◆투기지역 3억원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못받아

우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단, 10일 이전 분양권과 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 직장이동 등 실수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도 제외한다.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 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구입아파트와 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할 경우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전세보증대출을 신청하고 받은 뒤 규

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회수는 10일 이후 대출 계약시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는 추가약정을 체결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다만 구입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까지는 대출 회수를 유예한다.

◆금융위, 잔금 대출 관련 보완책 마련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전세대출 규제를 우선 시행하되, 불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대출 규제에 한해 보완책을 마련한다.

앞서 금융위는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 6월 19일 이전에 청약당첨이 됐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한 차주에 한해 중도금은 기존과 동일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고, 잔금대출은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 잔금 대출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분양가의 60% 이내인 중도금 대출 범위에서 조정대상지역은 시세의 50%(9억원 초과 30%), 투기과열지구에는 40%(9억원 초과 2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초 중도금 대출을 적게 받은 경우에는 대출가능금액이 더 줄어들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5G불법보조금'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

방통위, 역대 최대규모 과징금 부과  
SKT 233억, KT 154억, LG U+135억  
사전승낙제 위반 125개 유통점 2.7억

5세대(5G) 이동통신 불법보조금과 관련, 이동통신사들이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당초 시장 예상치였던 700억~800억 규모보다는 제재 수위가 낮았다.

방통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기로 의결했다.

감경비율은 이동통신 3사가 동일하게 45%로 책정됐다. 총 매출액 등에서 SK텔레콤 2.2%, KT 2%, LG유플러스 2.2%로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뒤 45% 감경을 적용했다.

각 통신사 별로 SK텔레콤이 233억원, KT가 154억원, LG유플러스가 135억원이다.

또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

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지급이나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이 초과지원금 지급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아니라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식으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3사가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및 제4조제5항(공시지원금의 115% 초과 지급)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통3사가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

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 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이동통신 3사 임원을 불러 소명을 듣기도 했다. 이동통신사는 5G 초기 가입자 확대 필요성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소명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반영해 예초 시장에서 예상한 과징금 규모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의 제재가 가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상혁 방통위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통위위원회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하는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 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자 등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나인 기자 silkni@

## 두산-스카이레이크, 두산솔루스 매각 MOU 체결



매각 가격·조건 등 언급은 없어

경영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는 두산그룹이 전자 소재 계열사인 두산솔루스를 토종 사모투자펀드(P-EF)인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에 매각한다.

두산은 두산솔루스 매각과 관련해 사모펀드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와 7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8일 공시했다.

두산안팎에선 두산솔루스매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두산은 그밖에 매각 가격이나 조건 등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두산그룹은 전자·바이오 소재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두산솔루스 지분 전량을 스카이레이크에 매각하기 위해 협의해왔다.

두산솔루스는 전자·바이오 소재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지난해 매

출 2030억원, 영업이익 380억원을 올린 알짜 회사다. 두산솔루스는 (주)두산(17%)과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 주요 주주를 포함한 특수관계인(44%)들이 지분 61%를 보유하고 있다. 매각가는 7000억원 정도로 거론된다.

두산그룹은 애초 스카이레이크와 매각 협상을 벌였으나 매각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두산그룹은 대기업들을 상대로 매각에 나섰으나 예비입찰이 흥행하지 못했고 이후 스카이레이크와 다시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



# 40兆 중고차시장 놓고 大·中企 힘겨루기 ‘수면위로’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여부 고심 대기업 완성차社 진출 가능성 비차車사업협회 “해외업체는 이미 진출” 車매매연합회 “대기업 진출 안돼”

연간약 40조원에 달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을 놓고 대·중소기업간 줄다리기 본격화될 조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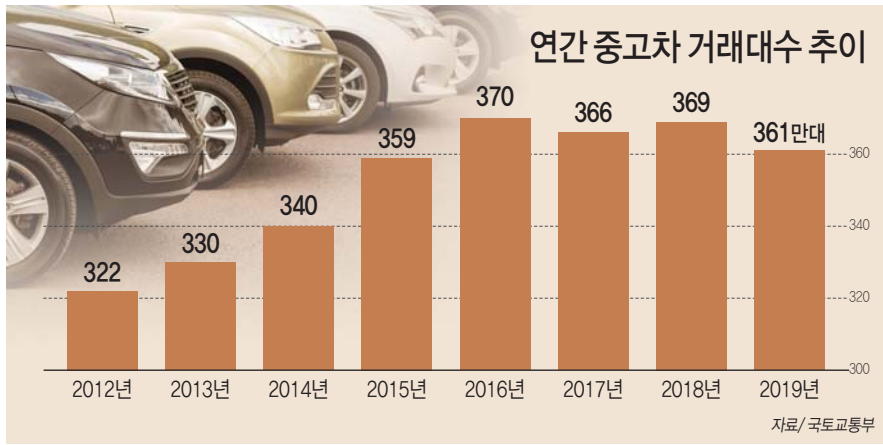
중고차 사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놓고 정부가 장고에 들어간 가운데 대기업이 먼저 시장 진출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다.

현대차그룹이 관련 시장에 진출할 경우 현재 중고차 경매사업을 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포문을 열 것으로 관측된다.

5800여 개가 넘는 중소 중고차매매상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놓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2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



합연합회 등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중소기업 사업자단체, 대기업 완성차 회사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자동차사업협회, 수입차판매업체 관계자가 두루 참석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국자동차사업협회는 대기업 완성차 회사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 가능성을 언급했다. 자동차사업협회에는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가 회원사로 가입해 있다.

자동차사업협회 김주홍 상무는 “제조회사들이 브랜드 가치 제고, 고객·제

품 관리, 애프터서비스(A/S) 등을 통틀어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자동차 제조는 선진화돼 있는데 중고차 시장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데 다 낙후돼 있어 완성차 회사들이 시장에 뛰어들면 새로운 경쟁력을 통해 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상무는 “국내에 진출한 벤츠나 BMW 등도 중고차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데 해외(완성차)브랜드는 되고, 국내 브랜드는 안된다는 것도 논리가 빈약하다”고 덧붙였다.

중고차 판매업의 경우 2013년 당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총 6년(3년+3년)간 보호를 받아오다 지난해 적합업종에서 해제됐다. 이후 관련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진입을 추가로 막기 위해 이번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판매업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떨어지고 산업경쟁력,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해 일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동반위는 완성차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 미칠 영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서 연간 거래된 중고차는 361만대 정도다. 올해 들어 1·4분기에만 약 90만대가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고차 1대당 평균 거래가격이 110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연간 시장 규모만 40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국내의 중고차 매매업체는 총 5843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케이카(K-CAR), AJ 셀카, 오토플러스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중소기업, 소기업이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완성차를 제조하는 회사가 중고차 매매업에 실제 뛰어들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시장 진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면서 “관련 진출 계획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강력하게 규탄하며 완성차 회사의 시장 진출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담당하는 중기부는 중고차 매매업에 대해 추가 의견 등을 수렴하고 우선적으로 업계간 상생협약을 최대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박상용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지울적업상생협약을 통해(대·중소기업이)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찾아볼 계획”이라며 “다만 상생협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놓고)심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 심의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인고의 시간 이겨낸 디스플레이 ‘폭풍성장’ “저탄소 발전전략’, 130만 일자리 없앨 것”

(하반기)

TV패널값 최대 10% 상승 전망 스마트폰·TV시장 회복 분위기 OLED 패널 대량 양산 돌입 등 디스플레이 시장 호재 한가득

디스플레이 시장이 하반기 ‘폭풍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오랜만에 대폭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된다.

트렌드포스는 7월 TV 패널 가격이 지난달보다 6~1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32와 55형은 8~10%, 43·50·65인치 패널은 6~8% 수준이다.

최근 들어 패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영향이다. 코로나19로 인해 TV 등 디스플레이 제품 판매량이 늘어난 데다, 글로벌 유통망이 6월 들어 락다운 해제로 영업을 재개하면서 패널 가격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분기 잠정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반도체와 신가전이 큰 역할을 했지만, TV 부문에서도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가 LCD 패널 사업을 정리한 것도 큰 영향을 끼쳤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내년부터 LCD 패널 생산을 중단기로 하고, 올 초부터 관련 사업을 구조조정 중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올 들어 L8라인을 철거하고 ‘큐디(QD)’ 장비 반입을 시작했고, LG디스플레이는 이미 지난해 파주 P8 라인을 가동 중단했다.

3분기에는 더 긍정적이다. 하나금융투자는 보고서를 통해 7월 초 LCD TV 패널 가격이 6월 대비 55형 5.2%, 32형도 6.1% 상승했다고 밝혔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도 5월 기준 한국과 중국의



LG디스플레이 파주클러스터.

LG디스플레이

3분기 패널 주문량이 2분기 대비 각각 30%, 10% 증가할 것이라며, 6월에는 중국 업체들이 구매 계획을 상향 조정하며 예상 주문량이 25% 추가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했다.

TV 시장이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프로모션 확대와 함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률 증가로 3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LG디스플레이 광주우 공장도 3분기 본격 가동될 전망이어서 OLED TV 시장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 OLED 패널이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하면 가격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시장 회복도 주요 요인이다. 하반기 삼성전자와 애플 등 주요 브랜드가 신형 모델 출시를 예정한 가운데, 스마트폰 수요도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다.

당장 2분기에도 스마트폰 시장이 예상 밖의 실적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어닝서프라이즈에 큰 몫을 했고,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다.

중국의 추격세도 일단은 잠잠해졌다. 당초 애플이 신형 스마트폰을 모두

OLED 패널로 바꾸면서, 중국 BOE에 공급을 타진했다가 품질 검사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 결국 LG디스플레이가 애플에 공급할 중소형 OLED 패널 라인을 확충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시장 회복도 디스플레이 업계에는 중요한 호재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전장용 디스플레이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이후 전기차 등 신형 모델 출시가 가속화하면서 LCD 패널 뿐 아니라 P-OLED 등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변수는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미중 무역분쟁이 첨예해지면서 TV 시장도 예상보다 회복을 늦출 수 있다는 것. 중국 업계가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다시 공급이 과잉될 가능성도 우려됐다.

유안타증권 김광진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상승추세가 4분기 이후까지 유지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국내 패널 2사가 LCD 생산을 하지 않아도 중국 내 BOE B17과 샤프 광저우팩 등이 램프업을 본격화하면서 수급불균형은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없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철강 등 5대 산업계 토론회 정부 권고안 우려 한목소리 “제조업 생산 반토막 날 수도 현실성 떨어져 재검토 필요”

정부가 올해 말까지 UN에 제출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수립 절차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올해 2월 관련 민간포럼이 발표한 권고안대로 확정될 경우 최대 13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업종협회는 8일 공동으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산업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발표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권고안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의 이상엽 총괄간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는 “민간포럼 권고안은 온실가스 감축수단별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205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최대 75%(1안)에서 최저 40%(5안) 감축하는 5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종 전문가들은 민간포럼 권고안이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현실과 감축수단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산업계, 기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철강협회 남정민 실장은 “이미 2050 LEDS를 제출한 EU와 일본은 수소로 철을 만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통해 각각 5%, 10%의 온실가스만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민간포럼 권고안에서는 45%까지 줄이겠다고 제시했다”며 “감축수단에 대한 목표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한국석유화학협회 김기영 본부장은 “민간포럼 권고안에서 제시한 석유화학업종의 핵심 감축수단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라며 “그러나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정과 에너지가 필요해 온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시멘트협회 김의철 팀장도 “시멘트업종의 핵심 감축수단은 폐콘크리트 재활용 기술”이라며 “폐콘크리트에서 재활용 가능한 시멘트 미분말이 2% 내외인 점을 고려할 때 포럼 권고안을 따르기 위해서는 폐콘크리트를 해외에서 대량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김효수 팀장은 “민간포럼 권고안에 따르면 반도체를 생산하는 모든 기업은 공정가스 저감설비를 100% 설치하고, 해당설비의 가동률을 100%로 유지해야 한다”며 “저감설비는 100% 설치하는 가능하더라도, 가동률을 100%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30일 정도 소요되는 설비 유지보수도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로 나선 산업연구원 정은미 본부장은 “감축수단에 대한 대안 없이 권고안대로 시행되면 2050년 제조업 생산의 최대 44%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곧 글로벌 경쟁우위를 갖고 있는 국내 기업의 위축이나 폐업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5가지 권고안에 따른 국내 제조업의 전후방 산업까지 고려한 고용감소 유발효과는 최소 86만명에서 최대 130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제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성운 기자 ysw@



화제의 종목 SK바이오팜 2면

# 공모가 5배, 목표가 2배 애널도 알수없는 적정주가

SK바이오팜 수급, 비정상적 수준 분석  
개인투자자의 기대감에 쫓림투자 지적  
변동성 커져 합당한 주가 찾기도 어려워

개인투자자의 과도한 기대감이 SK바이오팜에 대한 비현실적인 쫓림투자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오 기업은 특성상 실적보다 연구·개발(R&D) 역량과 성장성이 기업가치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 현재 SK바이오팜 수급은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증권사 리서치센터도 SK바이오팜에 대한 선풍적인 기업평가를 꺼리고 있다.

◆ 폭등세 언제까지...5거래일 만에 공모가 5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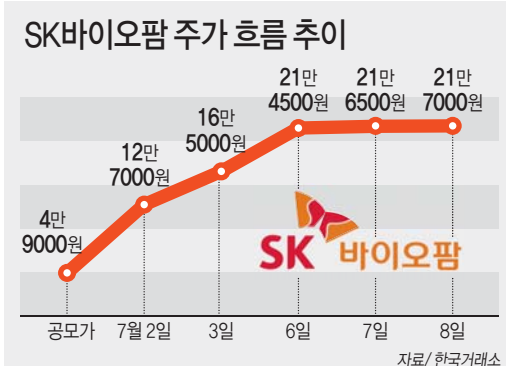
SK바이오팜의 상승세는 현재 진행형이다. 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보다 0.23%(500원) 오른 21만7000원에 거래를 끝냈다. 오전 들어 19만8000원까지 8.55% 떨어지며 상장 5거래일 만에 내림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오후 2시가 넘어서며 상승전환했다.

공모가(4만9000원)보다 4.5배 수준으로 가파른 상승을 한 상태다. 앞서 거래 첫날 시초가인 9만8000원에서 가격제한폭까지 올라 12만4000원에 거래를 마친 후 6일까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전 거래일(7일)도 0.93% 상승 마감했다.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주워 담는 식이다. 외국인은 상장 첫날인 2일부터 전날까지 6283억 원 어치의 SK바이오팜 주식을 팔았다. 같은 기간 외국인 순매도 종목 1위다. 두번째로 많이 팔 셀트리온헬스케어(1966억원)의 3배 이상 매도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이 기간 각각 5403억원, 1053억원 어치를 사들이며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은 종목을 사들였다.

◆ 적정가치 산정 불가... "추격매수 위험"

전문가들은 쉽사리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으로 꼽히지만 SK바이오팜에 대한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발행한 곳은 2곳뿐이다. 유진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목표주가를 각각 10만원, 11만원으로 제시한 것이 전부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유진투



자증권은 경쟁 업체인 벨기에 UCB의 고성장 가치를 반영했고, 삼성증권은 수노시와 엑스코 프리 등 미국 시장 진출에 따른 잉여현금흐름 증가를 예상해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했다. 미래가치 등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예측이 목표주가를 결정했다고 볼 수 있다.

한 제약·바이오 담당 연구원은 "SK바이오팜의 경우 단타성 매매공방이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진 현재 합당한 주가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했다. 가뜰이나 바이오기업 특성상 펀더멘털(기초체력)을 측정하기 어려운데 SK바이오팜의 경우 막대한 유동성에 기댄 투기적 성격까지 더해져 정상적인 밸류에이션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항변이다. SK바이오팜에 당일 주가 흐름에 관해 묻자 "합리적인 이유보다는 유동성에서 비롯된 수급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지나치게 반영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온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도 "현재 투자자가 물리는 것이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보다는 주가가 오르니까 계속 더 오를 것 같다는 투기적인 성향이 반영된 것"이라며 "애널리스트들이 주가와 기업가치를 논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했다. 기대감만으로 추격매수를 하기에 위험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역기능의 대표적 사례"라면서 "결국 공매도는 비판적인 시각으로부터 시작한다. 주가하락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가격 변동을 막을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 개미와 다른 길 가는 외국인 SK팜 팔고 카카오 갈아타기

SK바이오팜, 3일 연속 상한가 기록  
외인, 상장 4일차부터 주식 순매도  
개인투자자, 7일에만 1977억 매수

외국인이 SK바이오팜을 팔고 카카오를 사면서 개미(개인투자자)와 엇갈린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SK바이오팜은 코스피 최초 상장 직후 '3연상' (3거래일 연속 상한가)으로 21만 6500원의 주가를 기록했다. 주가가 공모가인 4만9000원보다 4배 이상 상승한 것. 지난 7일 한국거래소는 SK바이오팜이 3일 전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했다는 이유로 주가 급등에 따른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외국인은 거래대금 기준 SK바이오팜을 가장 많이 순매도하며 상장 4일차부터 주식을 팔기 시작했다.

SK바이오팜이 최고가를 경신한 지난 7일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은 SK바이오팜을 가장 많이 순매도했다. 차익실현 물량을 쏟아냈는데, 이날 순매도 금액은 2077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1977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그밖에 개인의 순매도 상위 종목에 위치해 있는 카카오,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월 1일에서 7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 포스코, LG생활건강, CJ제일제당, 셀트리온 등 실적개선 주들과 카카오, 넷마블 등 비대면(언택트) 관련 주가 대부분이었다. 외국인은 ▲카카오 1527억원 ▲삼성전자 703억원 ▲포스코 673억원 ▲삼성전자 382억원 순으로 사들였다.

앞서 삼성전자는 2분기 매출액 52조원에 영업이익 8조1000억원으로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열풍으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어규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언택트 생활습관화에 따라 비대면 IT에 대한 관심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지난 2일 정일문(오른쪽 두번째부터)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조대식 SK SU PEX추구협의회 의장, 조정우 SK바이오팜 대표이사,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신관에서 열린 SK바이오팜 상장 기념식에서 시초가를 알아보는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실적 호조세는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대표적인 언택트주인 카카오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8월 초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카카오는 8일 전날보다 1만7500원(5.64%)오른 32만8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1월 기준 카카오의 최고가는 17만15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카카오의 2분기 실적은 매출 9139억원, 영업이익 952억원으로 전망된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6%, 135% 상승한 수치다. 호조세에 다가올 3분기에는 영업이익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승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코로나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비대면이라는 특성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카카오의) 주가를 견인했다"며 "특히 플랫폼 기업들이 집중해왔던 콘텐츠, 쇼핑, 금융 등 분야에서의 디지털 역량 강화가 중장기적인 펀더멘털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우호적인 투자심리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만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이익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국면에서는 반대로 이익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의 주가 프리미엄은 높아진다"며 "이익 변화를 주도하는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 유명 관광지 보다 마음 편한 여행... 비접촉 휴가 대세로

코로나 사태에 휴가 트렌드 급변  
독채·캠핑 등 거리두기 여행 인기  
야외활동 자제하고 랜선 여행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여름 휴가 트렌드마저 바꿔놓았다. 해외는 물론, 유명 관광지를 찾아다니는 여행 보다는 사람이 적은 곳을 찾아다니는 비접촉 캠핑이 대세다.

아예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방구석 랜선여행을 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온라인 쇼핑사이트 G마켓에 따르면, 올해 들어(1월 1일~7월 6일) 여행 상품 판매량을 작년 동기와 비교 분석한 결과, 해외여행 상품은 77% 감소한 반면 국내 숙박 예약 판매량은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상반기는 해외 관광도시 및 국내 특급호텔이 인기를 끌었다. 당시 인기 해외여행지는 오사카, 다낭, 후쿠오카 순으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관광지가 주를 이뤘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인천행 항공 판매량이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올해는 국내 독채 펜션 및 캠핑 등 사회적거리를 두면서 힐링 할 수 있는 여행지가 단연 인기다. 상반기 펜션/캠핑 판매량은 작년 대비 54%가 증가해 전체 여행 상품 중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다. 국내 호텔/레지던스 역시 8% 증가했다.

여름 휴가 기간이 다가오는 최근 한

달(6월 7일~7월 6일) 동안 국내 펜션/캠핑장의 판매량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30% ↑), 전라(29% ↑), 충청(6% ↑) 순으로 인기를 끌었다. 같은 기간 국내 호텔/레지던스 판매량도 7% 신장했다. 특히 충청도(70% ↑), 강원도(13% ↑), 제주도(12% ↑), 전라도(11% ↑) 등 비교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건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선호도가 높았다.

주말을 이용한 캠핑도 증가 추세다. 특히 자동차에서 숙박을 해결하는 '차박'이 올해의 여행 트렌드로 부상 중이다.

차박은 2030 젊은 세대 사이에서 특히 인기다. 인스타그램에 '#차박' 해시

태그를 단 게시물은 11만개가 넘는다.

차박 캠핑이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모바일 앱 서비스 이용도 늘고 있다. 낮선 지역에 여행을 나선 운전자 이동 경로의 주요소 위치와 가격비교 검색이 가능한 국내 최대 모바일 주유앱 오원이가 대표적이다. 최근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객이 늘면서 2020년 1분기 대비 2분기 1일 평균 주유 건수와 분기 전체 주유 금액 모두 1.5배가량 증가했다.

유통업계는 여름 휴가를 집에서 보내는 집콕족과 랜선 여행족들을 겨냥한 이색 상품을 내놓고 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는 항공기내식을 콘셉트로 기획한 '기내식 도시락 시리즈 3종(포크 플리

즈, 치킨 플리즈, 비프 플리즈)'을 선보였다. 기내식 특유의 감성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기존 일반 플라스틱 용기 대신 알루미늄 용기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마켓컬리는 실제 해외 여행 때의 맛을 집에서 느낄 수 있는 아시안 푸드와 이색 디저트 70여가지를 한데 모아 최대 40% 할인해 선보이는 '해외 미식 여행' 기획전을 오는 10일까지 연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여행이 어려워지자, 대안으로 국내 여행이나 대리 만족을 누리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말을 활용해 틈틈이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는 여행이나 캠핑, 또는 랜선 여행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원진 기자 tree6834@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광수 NH금융 회장

5대 금융지주 하반기 전략은 “고객중심·엔택트 강화”

# 고민 깊은 회장님들... 잇단 전략회의 “코로나 진검승부”

KB금융, 내일 경영전략회의 개최  
NH농협금융 22일, 신한금융 27~29일  
충담금 추가 적립, 리스크 관리 등 논의

금융지주사가 줄줄이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상반기는 예상보다 선방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코로나 여파가 본격화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한 충담금 추가 적립과 리스크 관리, 엔택트 강화 등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개별 금융지주별로도 이슈가 산적한 상황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지난 3일 가장 먼저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끝냈으며, KB금융지주는 오는 10일 화상회의를 준비 중이다. 하반기 경영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는 NH농협금융지주가 오는 22일, 신한금융지주가 27~29일로 잡아놓은 가운데 하나금융지주도 이달 중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3일 ‘2020 하반기 경영전략 워크숍’을 온·오프라인 연계 방식으로 열었다. 손태승 회장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등 50여명의 그룹사 주요 임원은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고, 본부장급 등 다른 참석 대상 직원은 비공개 유튜브 방송을 통해 비대면

채널로 참여했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강조했다. 그는 “고객은 물론 기업이나 직원들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예상되는 건전성 악화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도 매우 중요하지만 엔택트와 같은 세상의 변화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룹의 하반기 핵심 대응전략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고객중심 경영 강화 ▲디지털 혁신 ▲경영효율화 ▲그룹 확장 및 시너지 등을 제시했다. KB금융은 화상회의로 하반기 경영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미 잘 갖춘 만큼 CEO들도 모두 화상으로 참여한다.

올해 경영전략 키워드로 내놓은 ‘리드(L.E.A.D) 2020’의 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엔택트 시대를 맞아 디지털 혁신 등 하반기 추진해야 할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리드2020은 ▲그룹 핵심경쟁력 강화(Level up the core) ▲사업영역 확장(Expansion)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KB 구현(Active & creative KB) ▲고객중심 디지털 혁신(Digital innovation-customer centric) 등 4가지 방향을 말한다.

농협금융은 계열사 CEO와 전략 담당임원 등 40여명이 오프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상반기 성과분석과 디지털 전환 등 하반기 경영전략을 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전망 및 대응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오는 27일에서 29일까지 하반기 신한경영포럼을 개최한다. 상반기 성과를 분석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그룹의 디지털 전략과 펀더멘탈(기반·기초체력) 및 회복탄력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적립혜택 높은 배민 전용 현대카드 출시

배달 앱 전용 PLCC, 배민이 처음  
고객 중심 차별화된 리워드 혜택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현대카드와 손잡고 배달의민족 전용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를 출시한다.

우아한형제들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김범준 대표,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등 양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열고 배민 전용 PLCC 출시를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PLCC는 전용 신용카드를 보유하고자 하는 기업이 카드사와 함께 공동으로 설계, 운영하는 카드다. 일반 제휴카드보다 해당 기업에 더욱 집중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전용 PLCC를 출시하는 것은 배달의민족이 처음이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오른쪽)와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이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배달의민족 전용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 출시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다.

이번 파트너십에 따라 양사는 배민 앱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리워드 혜택이 담긴 ‘배민 PLCC’를 올해 하반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배민 앱 간편결제서비스인 ‘배민페이’에 배민 PLCC를 등록하고 결제할 경우, 앱 주문 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배민포인트의 적립율을

다른 결제수단보다 높일 예정이다.

또한 배민 주요 고객층인 2030 밀레니얼 세대가 엔택트 소비에 활발하다는 점에 착안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같은 디지털 구독 서비스나 온라인 쇼핑 이용 시 배민 PLCC를 사용하면 결제 금액의 일부를 배민포인트로 돌려준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IBK기업은행,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IBK기업은행이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비대면으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은 기업전용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대출 신청, 보증서 발급, 대출 실행 등 모든 과정을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공인인증서 기반의 스크래핑 기술로 자동 제출돼 고객이 직접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없앴다고 은행 측은 전했다.

기존 기업은행 거래가 없는 고객도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업 전용 모바일뱅킹 앱(App) ‘i-ONE뱅크 기업’에서 입출식 계좌 개설 후 기업 전용 인터넷·모바일뱅킹에 가입하면 기존 고객과 동일한 절차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에게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담보로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나우리 기자

## 신한카드, 車 혜택 총집합 ‘마이카 카드’

신한카드는 자동차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 전용 상품인 ‘신한카드마이카(MYCAR)’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마이카 카드는 차량 구입부터 주유, 정비 등 자동차 관련 혜택을 제공한다.

마이카 카드로 자동차 구입시 구매 방식과 관계 없이 캐시백을 제공한다. 일시불 또는 12개월 미만 단기 할부로 신차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0.2%, 최대



10만원까지 캐시백해준다. 또 12개월 이상 장기 할부, 할부 금융, 장기렌터카, 리스 등 자동차금융을 이용한 경우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4만원까지 캐시백을 지급한다.

마이카 카드는 차량 주유소, 충전소 이용시 할인을 제공한다. 휘발유는 리터당 80원, 경유는 휘발유가 환산 적용

LPG는 리터당 4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시에는 월 1만원 한도로 충전금액 30%에 대해 할인해준다.

이 밖에도 차량정비 업체, 주차 및 대리운전, 하이패스 카드 등에서 할인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자동차 종합 관리 상품을 출시하는 만큼 카드 플레이트도 특수 잉크를 사용해 자동차 고급 시트 재질의 느낌이 나도록 제작했다”며 “신한카드가 구매 혜택과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삶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ysl@



광주광역시 전일빌딩 내 컬처뱅크 복합점포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 광주에 문화 공유 플랫폼 ‘컬처뱅크’

하나금융그룹은 8일 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에 컬처뱅크 7호점이자 은행·증권 복합점포를 개점했다.

하나은행 광주지점과 하나금융투자 광주금융센터는 전일빌딩245로 이전하면서 지역 문화 공유 플랫폼인 ‘컬처뱅크’를 선보인다. 지역사회의 문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동참하고 은행·증권 복합점포로서 편리하고 차별화된 윈 스태프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일빌딩245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의 탄흔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아픈 역사의 공간으로 4년여간의 리모델링을 통해 금년 3월 시민을 위한 미래 문화창조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하나은행의 컬처뱅크는 은행 지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개방형 문화공간을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로 특화 콘텐츠 점포 등을 구축해 왔다. /나우리 기자 yul115@



# 아반떼도 고성능 'N라인'에 합류... 질주본능 깨운다

## 현대차, 아반떼 N라인 렌더링 공개

'1.6 l 터보' 동력성능 강화  
올해 N라인 5종까지 확대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대감

현대자동차가 고성능 'N브랜드' 제품군 확대에 속도를 높인다.

메르세데스-벤츠와 BMW가 각각 AMG와 M이라는 고성능차 전문 라인업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운데 현대차도 차별화된 제품군으로 기술력 입증에 통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대차 N브랜드의 기술력이 벤츠와 BMW와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8일 준중형 세단 아반떼의 고성능 부분 개조(튜닝) 모델인 '올 뉴 아반떼 N라인'의 외관을 공개했다. '올 뉴 아반떼 N라인'은 현대차가 2017년 9



현대차 올 뉴 아반떼 N라인 렌더링 이미지.

월 첫 번째 N브랜드 모델인 i30N을 유럽에 출시한 뒤 2018년 6월 두 번째 모델 벨로스터N에 이어 세번째로 출시하는 고성능 N 라인업이다.

현대차가 이처럼 N라인업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는 배경에는 습식 듀얼 클러치(DCT) 개발 성공덕분이다. 그동안 벨로스터N의 경우 지금까지 수동 변속기 모델만 있었는데, 올해 DCT를

탑재한 자동변속기 모델이 추가됐다. 습식 DCT는 수동변속기 두 개를 결합해 자동변속기처럼 쓸 수 있게 하는데, 연비가 좋고 가속력 등이 뛰어나 고성능차에 쓰인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올해 N라인 제품을 5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반떼 N라인의 디자인은 '로우 앤드 와이드(Low and Wide) 차체가 낮고

가로 폭이 넓다는 의미'를 콘셉트로 외장 주요 요소에 N라인 전용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앞 부분은 메시 라디에이터 그릴과 N라인 엠블럼, 스포티한 인상의 에어 인테이크 등으로 꾸며졌다. 옆 부분은 차체를 낮게 보이도록 연출하는 사이드 실과 N라인 전용 18인치 전면가공 알루미늄 휠이 쓰인 게 특징이다.

현대차는 "뒷 부분에 날렵한 인상의 스포일러와 싱글 트윈 머플러, 수평 구조의 와이드한 리어 디퓨저 등을 적용해 차량의 역동적인 인상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아반떼 N라인은 배기량 1.6리터(L)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한다. 최고 출력은 204마력(ps), 최대 토크는 27.0kgf·m다. 6단 수동 변속기와 7단 DCT 자동 변속기 모델이 있다.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 동급 최고 수준의 대용량 디스크 브레이크 등도 쓰였다.

현대차는 다양한 라인업 구축을 통해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017~2018년 WRC 제조사 부문 준우승에 이어 지난 시즌에는 참가 6년 만에 처음으로 제조사 부문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제조사 팀이 국제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우승한 건 처음이다.

또 지난해에는 전용 랠리카가 아니라 양산차를 튜닝한 모델로 경주하는 WTCC에 i30N TCR로 2개 팀이 출전, 시즌 종합 1~2위를 석권했다. 이런 성과 속에 현대차의 양산형 고성능차 벨로스터 N은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로드앤드트랙에서 '2020 올해의 퍼포먼스카'에 선정된 바 있다.

현대차의 고성능 N브랜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 확보와 라인업 확대를 통해 판매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현대차의 N브랜드는 비인기 해치백 벨로스터N과 i30N만 보유하고 있었다. 아반떼 N에 이어 소형 SUV 코나에도 N 브랜드를 추가해 올 하반기 신차 물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내달 5일 '구릿빛' 갤럭시20 베일 벗는다

삼성전자, '언팩' 초대장 발송  
갤 폴드2, 갤럭시 Z 플립 5G도 공개

삼성전자가 하반기 신형 스마트폰 공개 일정을 확정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20과 갤럭시 폴드 2, 갤럭시 Z 플립 5G 등이 선보여질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8월 5일 오후 11시(미국 동부 시간 오전 10시)에 '갤럭시 언팩'을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8일 초대장을 발송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언팩 온라인 초대장은 15초 분량의 영상도 담았다. 영상은 S펜에서 떨어진 구릿빛 물방울이 떨어져 바닥에 닿아 퍼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S펜과 물방울 색은 '미스틱 브론즈'로 알려져 있다. 미스틱 브론즈는 지난



삼성전자가 8일 오전 공개한 갤럭시 언팩 공식 포스터. /삼성전자

1일 삼성전자 러시아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유출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모델의 색상과 같다.

삼성전자는 전통적으로 상반기 언팩에서는 갤럭시 S 시리즈, 하반기에는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공개해왔다. 지금까지 유출된 정보를 종합하면 갤럭시 노트 20은 기본형과 울트라형의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카메라는 울트라 모델이 1억800만 광각, 1300만 망원, 1200만 초광각 카메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100배 줌 기능을 제외하고 문제로 지적된 자동 초점 기능(AF)을 강화할 예정이다.

노트20은 S펜 지연 속도를 애플 펜슬 급인 8ms로 높이고, 120Hz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를 사용해 부드럽고 선명한 화면을 구현할 예정이다. 2세대 쿼드 3D 소니 맥스 지문인식스캐너를 도입해 정해진 위치에서만 지문인식이 가능했던 불편함도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트20 기본형은 화면 측면 마감 부분을 구부린 '엣지' 방식을 사용했던 것과 달리, 평평한 '플랫'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것으로 추정됐다.

언팩에서는 전작을 보완한 갤럭시 폴드 2와 갤럭시 Z 플립 5G도 공개한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삼성, 돌비·DTS 탑재 '프리미엄 사운드바'

호주 시작으로 글로벌 순차 출시

삼성전자가 최고급 사운드바를 들고 전세계를 공략한다. 삼성전자는 8일 호주를 시작으로 2020년형 사운드바 'Q 시리즈' 최고급 모델인 'HW-Q950T'와 'HW-Q900T'를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HW-Q950T는 천장 방향으로 소리를 내보내는 두 개의 무선 후방 업이어링 스피커를 포함한다. 가정용으로는 최다 채널인 9.1.4 채널을 지원하는 것. HW-Q900T도 본체와 서브 우퍼 만으로 7.1.2 채널을 구현했다.

9.1.4 채널은 기존 7.1.4 채널에 좌우 와이드 스피커가 추가된 것으로 물체의 움직임보다 사실적으로 표현해주며,

사용자 전면 기준 좌우 60도 전후 각도에서 나오는 전측방 사운드를 들려줌으로써 사운드 범위가 넓어져 보다 생생한 현장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2개 모델 모두 입체 음향 기술인 돌비사의 애트모스와 DTS사의 DTS:X를 탑재했으며, 새롭게 HDMI eARC도 지원해 돌비 트루 HD와 같은 무손실의 고품질 서라운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특히 2020년형 삼성 QLED TV와 연동할 경우 TV와 사운드바의 스피커를 모두 활용해 풍부한 서라운드 사운드를 구현해 주는 'Q-심포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Q-심포니는 CES2020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기술이다.

디자인도 강화했다. 기존 대비 사운드바 본체 높이를 13mm 이상 낮춘 69.5mm



삼성전자는 최고급 사운드바를 글로벌에 순차 출시한다. /삼성전자

로 설계해 스탠드형 TV와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화면을 가리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 사운드 투과율을 극대화한 '크바드라트'사의 패브릭 소재를 제품 전면 적용해 프리미엄 디자인을 완성했다. 가격은 각각 190만원과 140만원이다. 국내에는 오는 14일에 선보일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juk@



LG유플러스 NW부문 직원들이 RPA 솔루션을 주제로 토론했고 있다. /LG유플러스

# LGU+, '로봇자동화'로 네트워크역량 강화

LG유플러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의 일환으로 로봇자동화(RPA) 솔루션을 활용해 통신 품질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8일 밝혔다.

RPA는 사람이 수행하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소프트웨어(로봇)를 통해 자동화하는 기술을 뜻한다. 정형화된 데이터 비교, 검증이나 반복적인 사무 업무 대체에 활용할 수 있다.

미리 정해진 대로 로봇이 동작해 사람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고, 대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과제가 개발되면 스케줄링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로봇이 대신 업무를 수행하며 24시간 업무를 볼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2018년부터 네트워크(NW)부문에서 RPA를 도입해 업무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RPA를 개발할 수 있는 자체 전문가를 양성해 외부에 개발을 의뢰하지 않고 직접 개발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 각 조직별로 RPA 업무를 수행할 대표 인원을 선정해 약 20명의 전담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약 160건 과제 개발을 통해 7만 시간에 걸친 업무를 개선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 silki@

# "소상공인 매장에서 구매하면 기부금 적립"

SKT '착한 소비' 캠페인 진행

SK텔레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상생 제휴마케팅에 나섰다.

SK텔레콤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T멤버십 열린베이커리와 5GX 부스트파크 제휴처에서 고객이 멤버십 할인을 받아 '착한 소비'를 하면 회사가 이용 건당 기부금을 적립하는 '행복크레딧' 이벤트를 10월 말까지 펼친다고 8일 밝혔다.

행복크레딧은 SK텔레콤에서 운영하는 기부 프로그램이다. 11번가나 SK스

토아 등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상품을 구매하면 SK텔레콤이 결제액에 따라 기부 전용 포인트(크레딧)를 적립해 누적된 포인트를 연말에 사회공헌사업으로 전액 기부하는 식이다.

SK텔레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방객 감소와 수익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해 T멤버십 열린베이커리와 5GX 부스트파크 제휴처까지 행복크레딧 프로그램을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



# SK하이닉스 첨단동화

## 혹부리영감



만약 이때,  
SK하이닉스 대용량 낸드플래시\*  
기술이

없었다면

있었다면



\*낸드플래시  
데이터의 저장 장치로서,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보존되는 비휘발성 메모리. PC, 스마트폰의 주저장 장치로 활용.



## 고등교육재단 찾아 유학길 배웅나선 최태원 SK그룹 회장

## “지성쌓아 사회환원, 변화 선도를”

한국고등교육재단 장학생 격려 행사  
하버드 등 해외 우수대학서 박사 과정

최태원 SK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 장학생들의 해외 유학길을 직접 배웅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SK는 7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해외유학을 떠나는 장학생을 격려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행사에 직접 참석해 “유학 동안 지식을 쌓는데 그치지 말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지성인으로 성장해달라”며 “쓰면 쓸수록 사라지지 않고, 사회에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지성”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재단을 설립한 최종현 SK 선대회장께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이유는 ‘사회를 위한 지성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먼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사회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지성인으로 성



최태원 SK그룹 회장(상단 가운데)과 한국고등교육재단 장학생들이 ‘덕분에 챌린지’ 포즈를 취하고 있다. /SK

장해 주길 기대한다”고 부탁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올해 우리 모두 처음 겪어보는 팬데믹을 경험 중”이라며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직면한 도전을 해결하고,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는데 힘써 달라”고 응원했다.

최 회장은 이날 한국고등교육재단이 사장으로 참석했다. 인재육성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매년 개최되는 ‘SK 신입사원들과의 대화’, 재단 선발 장학생 격려 오찬 등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장학생 33명과 박인국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등 재단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올해 장학생들은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시카고, MIT 등 해외 우수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게 된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LG CNS, 하반기 ‘AM’ 사업적용 본격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임직원 약 450명 태스크포스 참여  
IT시스템 근간 바뀌 사업 경쟁력 ↑

LG CNS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AM)’ 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하며 하반기 AM 적용 사업 확대에 주력한다.

LG CNS는 AM을 클라우드와 함께 IT서비스 업계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사업·기술·이행조직의 임직원 약 450명이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다.

AM은 한꺼번에 모든 시스템을 같이 오는 박빙 방식을 지양한다. 기존에는 차세대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10년을 주기로 IT시스템의 전면 교체 가 이뤄졌다. 그러나 AM을 활용하면,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할 때마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AM을 통해 한 덩어리로 뭉쳐져 있던 IT 시스템을 수백 개 이상 서비스로 분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해된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특정 기능만 선택해 변경이 가능하다.

과거 IT시스템은 모든 서비스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개별 기능의 변경과 삭제가 어려웠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AM을 이용하면 IT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운영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AM의 궁극적 목적은 IT시스템의 근간을 바꿔서, 사업 경쟁력을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에 위치한 LG CNS 사옥 전경. /LG CNS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모든 비즈니스는 IT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고객 니즈를 빠르게 반영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처하려면, IT시스템도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LG CNS는 이미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서 AM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기존 IT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단순히 이관하는 방식으로는, 클라우드를 100%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클라우드에 맞게 기존 시스템을 분해하고 재조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올해 초 LG CNS는 빌드센터라는 기술전문 조직을 출범해 거대한 IT시스템을 작은 서비스 단위로 분해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MSA)’, 서비스 개발과 동시에 테스트·운영을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인 ‘CIC D’ 등 AM 전문 기술을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 더 똑똑해진 자율주행로봇.. 병원·식당 서빙 ‘척척’

LG전자 ‘LG 클로이 서브봇’ 출시  
다수 목적지 설정가능, 장애물 감지

LG전자가 서빙 로봇을 정식 출시했다. 클로이 라인업도 안내로봇과 홀로봇, 셰프봇에 이어 5종으로 늘었다.

LG전자는 8일 ‘LG 클로이 서브봇’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랍형과 선반형 2종으로 내놨다.

서브봇은 공식 출시에 앞서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외과에 공급됐다. 국내 병원에는 처음 도입됐다. 혈액 검체와 처방약, 수액 등 수시로 운반해야 하는 물품 배송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어서 이달부터는 CJ푸드빌 제일제면소와 빙스, 계절밥상 등 매장에 선반형 서브봇을 순차 운영할 계획이다.

서브봇은 병원과 식당뿐 아니라 호텔과 사무실 등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



서울대병원에서 운용중인 클로이 서브봇. /LG전자

으로 기대된다. 가로 50cm, 세로 50cm, 높이 130cm 크기로, 서랍형은 서랍 3칸에 최대 15kg까지, 선반형은 최대 4개 칸에 20kg까지 실을 수 있다. 배송 중단,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잠금 장치도 장착했다.

자율주행 기술 기반으로 다수 목적지를 설정할 수도 있다. 장애물을 감지하

면 “죄송합니다. 잠시만 양보해주세요”라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내 메시지가 나오게 제작했다. 이미 2017년 인천공항에서 운영되며 안정성을 검증했다.

운영 중에는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며 친밀성을 높이기도 한다. 영어를 지원해 외국인이 있는 공간에서도 편리하게 쓸 수 있다.

운영은 관리자가 로봇 관제 시스템을 이용해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다.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사용 이력, 배송 스케줄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는 로봇이 단순한 업무를 대신하면 직원들은 육체적인 부담을 줄이고 고객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 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시기에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로봇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용 기자 juk@

## 한화토탈, 빅데이터 활용 설비정보포털 구축

공장 안전가동·효율성 제고 두तो끼  
도면·점검이력 등 다양한 정보 검색

한화토탈이 국내 석화업계 최초로 공장 설비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공장의 안전가동과 운영효율성 제고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한화토탈은 8일 대산공장에서 가동 중인 모든 설비들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설비정보포털(AI P)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화토탈이 이번 구축한 설비정보포털은 대산공장에 설치돼 있는 30만 개 설비에 대한 사양, 도면, 점검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일반 포털 사이트처럼



한화토탈 직원이 설비정보포털을 사용하고 있다. /한화토탈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한화토탈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연간 약 3만2000시간의 업무시간 단축, 설비 현황분석과 적시 정비활동을 통한 사고 예방 등 매년 22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BMW코리아, ‘뉴330e’ 국내 공식 출시

12kWh 배터리 장착, 113마력·140km/h

BMW 3시리즈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로 영역을 확대한다.

BMW코리아는 8일 뉴330e를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330e는 뉴3시리즈 세단의 PHEV 모델이다. 12kWh 배터리를 장착해 전기 모드만으로 최대 40km까지 주행할 수 있으며 최고 113마력에 최고 140km/h까지 달릴 수 있다.

주행 성능은 여전히 강력하다. 트윈 파워 터보 4기통 가솔린 엔진으로 모터

와 함께 최고출력 292마력에 최대토크는 42.8kg·m에 달한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9초만에 가속한다.

특히 스포츠모드에서 엑스트라부스트 기능을 사용하면 최대 10초 동안 41마력을 추가로 발휘하며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가속력을 붙일 수 있다. 복합연비는 16.7km/L에 달하며,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와 전국 공영주차장 50%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편의 기능도 다수 탑재했다. LED 헤드라이트와 3존 에어컨디셔닝 시스템, 콤포트 액세스 2.0, 선루프, 엠비언트



BMW 뉴 330e. /BMW코리아

라이트, 무선충전 등과 함께 안전한 주행을 지원하는 BMW 라이브 콕핏 프로페셔널,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킹 어시스턴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등을 기본 장착한다.

가격은 뉴 330e 럭셔리가 6260만원, 뉴 330e M스포츠가 6460만원이다.

/김재용 기자

## 포스코, 스마트워치 통해 근무자 안전 강화

신체 이상 감지시 즉각 구조신호

포스코가 현장 근무자의 신체 이상 감지시 즉각 구조신호를 보내는 스마트워치를 도입했다.

포스코는 8일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고위험 개소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근무자 1200여명에게 스마트워치를 배포했다. 스마트워치는 현장 근무자의 넘어짐, 심박이상, 추락 등 신체 이상이 실시간 감지되면 주변 동료들에게 즉각 구조신호를 보냄으로써 구조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최정우 회장은 “안전은 그 어떠한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며 “모든 임직원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전에 대비하고 산업 전 생태계가 안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다.

포스코는 향후 지능형 CCTV 고위험 알람 등 최신 기술을 제철소 현장에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 “신한의 비전 리더로부터... 팔로워 키워라”

**진옥동 신한은행장 유튜브 강연  
‘포스트 코로나’ 리더 역할 강조  
“팔로워 크기가 곧 리더의 크기”**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세상은 B.C. (Before Corona·코로나 이전)와 A.C. (After Corona·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라며 “코로나 확산에 대처하는 여러 국가들의 다양한 성공과 실패 사례를 보며 선진(先進)과 후진(後進), 즉 일류(一流) 국가의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7일 진 행장이 임원 및 본부장과 전국 부서장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리더의 역할에 대해 유튜브 생중계 강연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진 행장은 “이제 일류 국가의 기준은 부의 축적이 아닌 공동체의 존속(지속 가능)을 위해 헌신, 절제할 수 있는 시민의 존재 여부가 될 것”이라며 “도태



지난 7일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꾸준한 변화와 함께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진 행장은 기업 문화와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려는 노력이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업 문화로 잘 관리되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 기업 문화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명확한 가치이념 ▲이념이 반영된 문화기동장치(의례와 의식) ▲이를 제대로 작동시키려는 리더의 노력과 함께 ▲세 가지 요소의 반복적인 커뮤니케이션 등을 제시했다.

진 행장은 “기업 문화에 대해 교육하는 것보다 리더의 행동을 통해 신한의 비전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리더의 실천을 강조했다.

또 그는 “결국 리더의 크기는 팔로워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으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많은 팔로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982년 7월 7일 국내 최초의 순수 민간자본 은행으로 설립됐다. 창업자 정신과 기업 문화, 리더의 역할을 돌아보고 이를 통해 미래를 향해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 매년 7월 기업 문화를 테마로 전 직원이 함께하는 ‘컬처 위크(Culture Week)’를 신설하고, 첫 번째 순서로 임원 및 본부장과 전국 부서장이 참여하는 ‘리.더.주간(신한과 리더에게 이(利)로움을 더하는 신한문화 주간)’으로 진 행장의 리더십 강연을 마련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호반건설 시그니처 건본주택 외관. /호반건설

## 호반건설

### 당진 호반씨밋 시그니처 아트홀급 건본주택 오픈

호반건설은 ‘호반씨밋 시그니처’ 건본주택을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호반건설의 ‘호반씨밋 시그니처’는 충남 당진시청 인근에 들어서며, 당진시에 공급하는 첫 ‘호반씨밋’ 브랜드 아파트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2개 동 규모며, 총 1084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단일면적으로만 구성됐고, 타입별 가구 수는 ▲84㎡A 847가구 ▲84㎡B 189가구 ▲84㎡C 48가구다.

건본주택내 카페테리아에서는 음료를 제공하고 방문객들이 여유롭게 실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카페테리아는 층고를 높인 오픈 스페이스로 구현했고, 원색적인 색감의 가구와 아치형 인테리어로 고풍스러움을 더했다.

또한 호반씨밋 시그니처 건본주택에서는 상품의 세부 이해를 돕기 위한 전시 구성이 돋보인다. 건본주택 내에는 확장형 침실과 주방에 대한 별도의 전시 부스가 각각 마련돼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분양일정은 오는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청약, 16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2일이고, 계약은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정연우 기자

# 현대엔지니어링 ‘공평 15·16지구 재개발’ 수주

**서울 중심부 업무·상업시설 신축  
지하 8층~지상 최고 17층 규모**

현대엔지니어링은 1880억원 규모의 종로구 공평 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평 15·16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 신축공사는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87번지 일원 9277㎡(약 2800평) 부지에 지하 8층~지상 최고 17층 규모의 업무·상업시설 2개동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착공 후 31개월이다.

공평 15·16지구 사업지는 일명 CBD(중심상업업무지구)로 불리는 광화문에서 서울역으로 이어진 오피스 지구



공평 15,16지구 오피스 신축공사 투시도. /현대엔지니어링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탑골공원, 피맛골, 인사동길 등을 기반으로 한 유동인구가 풍부해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공평 15·16지구 도시정비형재

개발 신축공사는 공공과 민간이 정비사업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도시·건축혁신안’ 1호 사업으로 지역의 역사성을 지키고 창조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혼합형’ 정비기법을 도입

한다.

이번에 공평 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신축공사를 수주하면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울산, 청주, 인천, 수원 등을 포함해 도시정비사업 실적 1조 2782억원을 달성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국내 최대 도심지인 서울 중심부에서 업무·상업시설 신축공사를 수주함으로써 당사가 보유한 높은 건축기술력과 설계·시공 품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대외적으로 입증했다”며 “전사적인 역량을 투입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 미래에셋, 근로공 퇴직연금 대표상품 선정



소득 TIF 3종이다. 미래에셋은 “외국운용사 위탁이 아닌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직접 운용하며 장기간 우수한 성과를 시현 중인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은 “전체 TDF 운용규모는 8월 기준 1조 5000억원 수준이다. 국내 개별 TDF 중 규모가 가장 큰 미래에셋전략배분 TDF 2025의 수탁고는 4848억원으로 2017년 3월 설정 이후 누적 수익률은 22.58%다.

류경식 미래에셋자산운용 연금마케팅부장은 “미래에셋 TDF와 TIF는 자산배분의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스스로 펀드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투자자들에게 은퇴자산의 적지에서 인출까지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금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

TDF2025·2045, TIF 3종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전략배분 타깃데이트펀드(TDF) 2종과 미래에셋평생소득타깃인컴펀드(TIF)가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대표상품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30인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사업주는 확정급여형(DB)을 제외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해 운영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상품은 미래에셋전략배분 TDF 2025와 2045, 미래에셋평생



하나은행 애자일 랩 참여 연수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하나銀-스타트업 협업, 혁신 인재 육성

**‘혁신기업 OJT 과정’ 실시  
5곳에 6개월간 직원 파견**

하나은행이 스타트업 발굴·협업·육성 프로그램인 원큐 애자일 랩(1Q Agile Lab)에 참여한 스타트업 5곳과 협업해 ‘혁신기업 OJT 과정’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혁신기업 OJT 과정’은 하나은행의 1Q Agile Lab에 참여한 핀다, 마인즈랩, 옴니아스, 데이터마케팅코리아, 자란다에 공모를 통해 선발된 직원을 6개월간 파견하여 일하며 배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과정은 기존 금융업의 장벽을 뛰어넘어 혁신 인재를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혁신기업 OJT 과정에 참여하는 직원들과 하나금융융합기술원 소속의 디지털전환(D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분야 박사들을 멘토·멘티로 매칭해 기술자문, 공동연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이베스트투자증권

### 신규 비대면 계좌고객 즉시 혜택 이벤트 진행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되는 신규고객 즉시 혜택 이벤트를 실시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벤트에 참여하면 신규 계좌 개설 시, 타 증권사 주식 이관시, 대출시 각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이베스트투자증권에 신규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면 투자지원금 1만원을, 200만원 이상 거래시 추가 4만원을 신청 즉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타 증권사 계좌에 있던 상장지수상품(ETP)을 포함한 주식을 이베스트투자증권으로 옮기면 매매 금액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로 현금을 받게 된다.

또한 이벤트 기간 내 신청자에 한해 60일동안 신용대출은 2.20%, 담보대출은 3.99%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연장조건 충족시 횡수제한 없이 만기 연장이 가능해 실질적으로는 기간 제한 없는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 올해 아직 이베스트투자증권에서 신용·담보 대출 이용실적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1인 1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송태화 기자



# 두 날개로 날지 못한 건설사... '재개발'서 상반기 실적 희비

(국내·해외)

건설사 2분기 실적 전반적 부진  
코로나로 4월 이후 실적 반토막  
삼성물산 도시정비사업서 부활  
대우·GS 등 조직정비로 반등준비



해외수주 사업에서 부진을 겪고 있는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도시 정비사업 수주와 신사업 진출, 조직 재정비 등에 힘쓰며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다.

단, 올해 2분기 실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탓에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주요 건설사의 대부분이 이달 말에서 다음 달에 걸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 ◆해외수주 반토막, 삼성·현대 정비사업 호조

8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1월 해외수주액은 56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3배 이상 늘었고, 지난 2월과 3월에도 전년 대비 각각 50% 증가폭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4월 -20.3%로 떨어지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5월과 6월에는 각각 18억2000만달러, 13억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의 절반 수준을 나타냈다. 올해 초 수주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올랐지만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닥친 4월 이후 반토막이 났다.

중동현장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해외 수주사업에서의 부진에 국내 대형건설사들은 국내 정비사업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힘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1위를 차지한 삼성물산은 도시정비사업에서 화려한 귀환을 알렸다.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 시공사에 선정되면서 5년 만에 정비사업 시장에 복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사비만 8000억원에 달하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시공

사로 선정되면서 자사의 아파트 브랜드인 '레미안'의 입지를 다시 굳건히 다졌다는 평이다.

현대건설은 올해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며 수주고 1위에 올라섰다. 현재까지 현대건설의 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3조4450억원이다.

이밖에도 현대건설은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북측제2구역 도시환경정비(3037억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1686억원) ▲부산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4160억원) ▲대전 대흥동 1구역 재개발(853억원) ▲서울 장위 11-2구역 가로주택정비(402억원) ▲강원 원주 원동나래구역 재개발(2080억원) ▲서울 제기4구역 재개발(1589억원) ▲부산 반여3-1구역 재건축

(2441억원) ▲대구 도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824억원) 등에서 수주권을 확보했다.

### ◆대림·GS·대우 조직 정비, 새 먹거리 모색

대림그룹 산하 건설 계열사인 삼호와 고려개발의 합병으로 지난 1일 대림건설이 설립됐다 이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건설업계에서 다시금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대림그룹의 의도가 담겨 있다. 대림산업은 대림건설의 지분 66.36%를 보유하게 된다. 향후 대림건설은 시공능력평가(이하 시평) 10위권 돌파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한화건설·태영건설·SK건설 등 다수 경쟁사와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GS건설은 해외 신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글로벌시장 공략을 위해 인도 태양광 발전사업에 진출했으며 민자발전사업(IPP) 개발자로서 인도 북서부 라자스탄 주에 발전용량 기준 300MW급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하는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1억8500만달러(약 2217억

원)며 GS건설의 투자금은 2350만달러(약 280억원)로 49%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대우건설은 지난 4월 인도네시아 LNG 액화 플랜트 공사인 탕구 익스펜션 페이스2 공사 계약을 맺으며 신남방시장 개척에 나섰다. 공사 규모로는 다소 적을지도 모르는 5000만 달러(약 616억원)지만 동남아시아 지역의 신시장 개척을 추진해 온 대우건설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LNG 액화 플랜트 분야로 해외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시장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건설사들의 2분기 실적은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조짐을 보여 신규 수주가 줄어든 것은 물론 해외 공사가 지연되는 등으로 인해 실적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2분기 실적은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 동·강·성 아파트값 상승률, 서울 평균 2배

(동대문·강북·성북구)

서울 아파트 m²당 매매가 4.62%  
GTX개발 등 개발호재로 상승세



서울 잠실일대 아파트 전경. /손진영 기자 son@

상반기 동·강·성(동대문·강북·성북구)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서울 평균보다 2배나 높게 나타났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오르세가 주춤한 가운데 서울에서 시세상승 추세 지역으로 손꼽히는 동·강·성이 올해 상반기 서울 매매가 상승률의 두배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한 것.

8일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의 아파트 m²당 매매가격은 4.62%(1030만→1078만원)의 상승률을 보였다.

강북지역의 경우 6.77%(825만→866만원)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강남지역은 3.34%(1210만→1251만원)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북중심의 시세상승이 이뤄졌다.

서울 구별 상승률을 살펴보면 ▲동대문 10.27%(782만→863만원) ▲성북 9.65%(757만→830만원) ▲강북 9.53%

(618만→677만원) ▲구로 8.45%(708만→751만원) ▲노원 8.43%(689만→747만원) 등의 시세상승률이 두드러졌다.

특히 기존 서울 시세상승의 대장주로 불리던 마·용·성(마포 4.95%, 용산 2.36%, 성동 5.88%) 시세상승은 둔화되던데 반해, GTX개발과 동북선 등 다양한 개발호재로 시세상승의 추세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강·성 지역이 시세상승 상위권에 포진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강북지역의 시세상승은 아파

트 매매거래량에도 즉각 나타났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기간과 비교해 올해(1~6월) 동대문, 성북, 강북, 노원 일대의 거래량은 ▲동대문(568→1359건) ▲성북(702→2002건) ▲강북(312→1156건)으로 모두 증가했으며, 최근 6·17 대책과 함께 매매수요가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는 ▲노원은 (1749→4534건) 매매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올해 서울 25개구 중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정연우 기자

## “카드사, 혁신 통해 종합지급결제업 역량 보여야”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를 활용한 결제 서비스를 실용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쟁업체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비접촉식 결제방식을 제공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화 플랫폼도 구축해 고도화하며, 카드업계 혁신 DNA는 앞으로도 계속 발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드업계 스스로가 지속적 혁신을 통해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를 넘어 종합지급결제업까지 담당할 역량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왔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사진)은 8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카드산업의 디지털 혁신현황 및 미래’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 회장은 기존 카드업계의 혁신 사례를 짚으면서 포스트 코로나에도 혁신을 이어나갈 것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카드업계는 태생부터 회원과 가맹점을 연결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 금융 시스템으로 태어났다”며 “데이터 기반 카드상품을 설계해 공급하고 생체정보

를 활용한 결제 서비스를 실용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쟁업체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비접촉식 결제방식을 제공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화 플랫폼도 구축해 고도화하며, 카드업계 혁신 DNA는 앞으로도 계속 발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석 기자 ysl@

## 산업단지 상상허브에 대유위니아 부지 지정

도심 노후산단 내 혁신거점 확충



대유위니아그룹이 정부 주도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함께할 예정이다.

대유위니아는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에 대유위니아그룹 R&D 등 부지가 포함됐다고 8일 밝혔다.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도심의 노후산단 내에 혁신거점을 확충하기 위해 각종 산업·지원 기능을 높이는 복합개

발 사업이다. 준공한 지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이며,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산단 대개조 계획’ 후속조치로 대유위니아 부지도 새로 지정됐다.

성남시와 대유위니아그룹은 중원구 상대원동의 R&D 부지 등 새싹기업 지원 산업시설과 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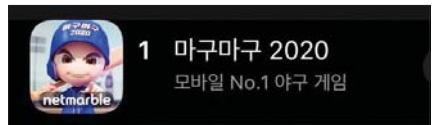
지원시설로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 2월 국토부 공모에 지원해 전문가 평가를 거쳤다.

대유위니아그룹 R&D 센터 등 부지는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을 통해 창의성과 혁신성을 접목한 새로운 산업단지로 재생될 예정이다. 기존 R&D 및 디자인 센터를 유지하면서도, 리모델링으로 발생한 여유공간과 부지를 제공해 도내 새싹기업과 공동연구시설의 입주를 지원한다. 성남시와 공동으로 주거와 보육, 문화복지 및 편의시설 등 지원 시설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용 기자 juk@

## ‘마구마구2020’ 출시 전부터 앱스토어 1위

사전 다운로드 8시간만에 쾌거



넷마블은 신작 야구게임 ‘마구마구 2020 모바일’이 사전 다운로드 8시간만에 애플 앱스토어 인기 1위에 올랐다고 8일 밝혔다.

넷마블은 지난 7일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마구마구 2020 모바일’을 미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식 출시일은 8일이다.

‘마구마구 2020 모바일’은 사전 다운로드 시작 후 8시간 만에 애플 앱스토어 인기 1위를 차지했으며, 8일 오전 8시 기준 구글플레이 인기차트 급상승분야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마구마구 2020 모바일’은 넷마블이 15년 동안 서비스 중인 PC 온라인 게임

‘마구마구’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야구게임이다. 이 게임은 마구마구 개발사 ‘넷마블엔파크’가 처음으로 만든 모바일 야구게임이기도 하다.

‘마구마구 2020 모바일’은 모바일 환경에 맞는 시스템 등을 선보인다. 특히 스포츠 모바일게임에서는 보기 드문 ‘자동과밍시스템’을 적용해 팀을 짜고, 다른 이용자와 승부를 펼치는 야구게임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20 KBO 시즌을 적용한 ‘라이브카드’와 이용자 간의 선수카드 거래가 가능한 ‘이적 센터’가 들어간다. /김나인 기자 slkni@



대웅제약



꼼꼼한 엄마들이 제대로 고른 대세비타민

# 임팩타민

필수비타민B 8종으로  
피로는 없애고  
에너지는 만들고!



광고심의필: 2019-1500-0002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비타민B의 더블임팩트 효과!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 드셔본 분들의 추천!

한 번 경험해보신 분들이 임팩타민을 추천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 필수비타민B 8종을 짝!

필수비타민B 8종을 모두 함유하여 피로회복부터 에너지 생성까지 도움을 줍니다.



### 편리한 복용!

냄새를 최소화한 소형정제로 복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

활성형 벤포티아민(B<sub>1</sub>)이 들어있어 생체이용률이 최대 8배 우수합니다.



### 항산화성분에 UDCA까지!

필수비타민B 8종은 물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 비타민E, 셀레늄부터 아연, UDCA까지 담았습니다.



- 육체피로
- 체력저하
- 눈의 피로
- 구내염
- 근육통, 관절통, 신경통

문의: 080-550-8308~9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임팩타민이 궁금하다면?

QR코드를 찍어보세요  
(판매약국찾기)

<http://www.impactamin.kr/>



# 항공업계, 휴가철 앞두고 코로나 대책 총력 “방역만전... 안심하고 탑승하세요”

대한항공, 탑승객간 접촉 최소화  
조원태 회장 등 임직원 기내 소독  
아시아나, 보건·위생 조치 도입  
제주항공, 기내서 'S.A.F.E' 실시

항공업체들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우려하는 고객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전 국제선 및 국내선을 대상으로 '존 보딩(Zone Boarding)'을 실시하고 있다. 존 보딩은 항공기내 구역을 세분화해서 구역별 순서를 정하고 탑승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후방열 승객부터 순서대로 탑승해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석 승객들이 한번에 줄을 서서 탑승하던 방식에서, 존별로 순서를 세분화해 혼잡을 방지하고 승객 간 이격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30여명의 임직원이 직접 기내 소독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기내 환경을 조성한 바 있다.

조원태 회장은 “대한항공은 고객의 건강하고 안전한 비행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더욱 안심하고 탑승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가운데)이 대한항공 항공기를 소독하고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자사가 속한 세계 최대 항공사 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의 회원사와 협력해 공동 보건 및 위생 조치를 도입했다. 회원사 항공편 간 환승을 포함한 전 여정에서 승객들이 일관성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게 주요 조치다. 필요시 탑승객이나 승무원에게 위생 물품과 보호 장구를 제공하고, 이들이 비행 중 증상을 호소할 때를 대비해 의심 환자를 다루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사항도 포함됐다.

또, 탑승객은 스타얼라이언스가 홈페이지 내 신설한 온라인 여행 정보 허브에서 회원 항공사와 주요 취항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건·위생 조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 주기된 항공기가 증가함

에 따라, 중정비 조기 수행을 통해 정비 항공기 수량을 늘리고 외주 정비를 자체 정비로 전환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안전 강화에도 힘쓰고 나섰다. 5~6월 예정이었던 5대 항공기의 중정비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 한해 중정비 대수를 52대에서 55대로 확대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제주항공은 객실승무원의 기내 서비스에 대해 'S.A.F.E'라는 새로운 기준도 마련했다. 이는 승객의 위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물리적 거리를 두면서, 친근하고 감성적인 서비스를 하겠다는 제주항공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국내 항공사 최초로 항공기 운항 중 기내 화장실 소독을 실시해 탑승객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서비스로 운영방식을 바꿨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부천영화제 VR로 즐겨요”

SKT, '감독과의 대화' 중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하이라이트인 '감독과의 대화'를 가상현실(VR)로 볼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제 24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에서 열리는 '감독과의 대화'를 '점프VR' 내 소셜룸에서 사전 녹화방식으로 제작했으며, 영화제 기간중 일반에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감독과의 대화'는 지난 6일 SK텔레콤 '점프VR' 내 소셜룸에서 2회에 걸쳐 BIFAN의 '비온드 리얼리티' 초청작 5편의 감독과 제작진 8명을 초청해 사전 제작됐다.

'감독과의 대화' 1회차는 '몽중화'의 오성 대표와 박용재 감독, '드림 마에스트로'의 임병한 감독, '드림 205'의 김해림 프로듀서가 참여했다. 2회차는 이승무 크리에이터, 360도 VR시네마 '레인프루츠'의 송영운 감독, '진격의



'감독과의 대화'에 참여한 참석자들이 '점프VR' 소셜룸을 이용하고 있다. /SK텔레콤

아빠'의 성시흥 감독과 김해경 미술감독 및 김현욱 촬영감독 등이 참석했다. 가상세계에서 진행된 '감독과의 대화'는 영화제 기간중 '점프VR' 모바일용 앱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또 SK텔레콤은 이번 BIFAN에 출품된 21편의 VR 영화를 '점프VR'에서 8월 말까지 단독 상영한다. 이용자들은 오클러스고 또는 기어VR 등 HMD 디바이스를 통해 '점프VR'에 접속하면, 영화제에 출품된 VR영화 21편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세균 99% 박멸”... 삼성 스마트폰 살균기

자외선 살균 무선충전기 선보여

삼성전자가 모바일 기기 위생까지 책임진다.

삼성전자는 8일 뉴스룸을 통해 국내에 '자외선(UV) 살균 무선충전기'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삼성닷컴과 디지털프라자 매장에서 판매하며 가격은 4만9500원이다.

제작은 삼성 모바일 액세서리 파트너십 프로그램(SMAPP) 파트너사인 삼성물산에서 맡는다.

삼성전자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위생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모바일 기기 소독기를 직접 판매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살균기는 내부에 세균을 최대 99% 제거할 수 있다고 글로벌 시험업체 인터텍과 SGS에 확인을 받았다. 제품을 넣고 10분간 가동하면 되며, 그 이상 가동은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했다.

듀얼 자외선 기능을 탑재해 물건 위



삼성전자 살균 무선충전기와 IT 제품들.

와 아래 가리지 않고 한번에 소독해준다. 무선 충전 기능도 지원해 살균과 충전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독일과 네덜란드, 태국과 싱가포르에 살균기를 출시한 상태며, 국내에 이어 미국 등으로도 출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코로나19에 대응해 향균 코팅이 된 스마트폰 케이스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김재용 기자 juk@



까사미아 센텀시티몰점.

# 까사미아 맞춤형 마케팅으로 충성 고객 확대나서

까사미아는 한층 강화된 '고객관계 관리(CRM) 시스템'을 구축해 더욱 세분화된 고객 타겟 마케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무더위에 늘어나는 '몰캉스(쇼핑몰·바캉스)족'을 겨냥해 대형 쇼핑몰 내 스텝숍 매장의 단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0일부터 까사미아 스타필드 하남점, 17일부터 부산 신세계센텀시티몰점에서 오픈 1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오랫동안 이어지는 집콕 생활에 집안 분위기를 휴양지 콘셉트로 꾸미는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여름철 집안 분위기를 시원하게 바꿀 수 있는 소품과 패브릭 제품을 최대 80%까지 할인 판매한다.

이외에도 브랜드 헤리티지는 물론 충성도 높은 밀레니얼 고객층 확보를 위해 회원 등급체계 세분화와 VIP 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까사미아 통합 멤버십도 운영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KT, 금융 API 클라우드 서비스 4종 출시

비즈니스정보 기업 쿠론과 협업

KT는 비즈니스 정보 제공 전문기업 쿠론과 협력해 금융기관을 위한 API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양사가 체결한 금융 API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이번에 출시되는 금융 API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업자 휴폐업 조회 ▲신분증 진위확인 ▲예금주 조회 ▲자동차 등록원부 통합 조회로 총 4종이다.

KT 클라우드 인프라로 제공돼 고객

사 내부 시스템과 연결할 수 있다. 간편 결제, 가상계좌, 펌뱅킹, 본인인증 등을 이용하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비즈니스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쿠론은 금융, 공공, 유통, 의료 등 산업 별 정보를 API 형태로 제공하는 비즈니스 정보 제공 전문 기업으로 국내 최대 정보 API를 보유하고 있다. KT는 국내 최초로 금융보안원 금융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통과해 KEB하나은행 글로벌 결제 플랫폼(GLN) 구축, 금융 전용 클라우드존 오픈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김나인 기자

# 경동나비엔, R&D 등 50개분야 공개 채용

경동나비엔은 오는 14일까지 연구개발을 비롯해 국내 및 해외 영업, 기획, 마케팅, 생산관리 등 총 50여개 분야에 걸쳐 인재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채용,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생활환경기업으로의 변화를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4월3일 당시 정부의 전환경보일려 의무화 이후 확대되는 콘텐츠보일려 시장에서의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고, 실내 생활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청정환경기 사업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채용절벽이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행 투자를 통해 미래를 위한 준비를 계속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포석도 있다. 실제로 경동나비엔은 최근 계속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적극적인 채용을 통해 인재 경영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창사 이후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승호 기자

# 코트라, 러시아서 온라인 韓우수상품전

중소·중견기업 164개사 참가

KOTRA(코트라)가 지난 6월 29일부터 3주 동안 CIS 온라인 한국우수상품전을 개최 중이다. 이번 온라인 한국상품전에는 우리 중소·중견기업 164개사가 참가했다.

코트라는 하반기에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모스크바에서 오프라인 전시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온라인 마케팅 사업으로 전환했다. 상품전은 온라인전시, 화상상담, 소셜미디어 마케팅 등 '온라인 수출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진행된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코트라는 러시아·CIS 시장 유망품목을 선정했다. 뷰티, 식품, 헬스케어, 스마트팜 등



코트트라가 3주 동안 러시아에서 개최중인 CIS 온라인 한국우수상품전.

260개 제품을 온라인 전시 플랫폼인 '바이코리아'에 홍보하고 바이어 화상상담을 지원한다. 현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소셜미디어 마케팅도 후속 사업으로 진행해 우리 기업의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을 돕는다. /김승호 기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회동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 협력목표 진전위해 韓정부 전폭적 지원할 것”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 방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북한과 대화물꼬 틀 방도 협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8일 “남북 협력이 한반도에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며 “북한과 남북 협력 목표를 진전시켜나가는 한국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협력 과제에 대해 미국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합의를 마친 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특히 비건 부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나를 카운터파트로 임명하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준비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북측에 대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년 동안 가졌던 여러 회의의 결론을 토대로 움직인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한반도 내 관계 변화, 한반도 비핵화, 한국 사람들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반도에 평화로운 결과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나는 이것이 매우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왔다”고 강조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우리는 현 상황에 비춰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도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며 “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이를 위해 한미는 조속한 재개를 위해 전력을 다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건 부장관은 북한과 대화 재개 시 균형 잡힌 합의를 이루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며 “비건 대표와 나는 이러한 입장 하에 앞으로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 외교차관은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뜻을 모으기도 했다. 조세영 외교부1차관과 비건 부장관은 이날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차관은 브리핑에서 “당면한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양측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7차례에 걸쳐 진행한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한·미 간 입장을 좁히지 못해 교착 상태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스웨덴 등 3국에 ‘K-스타트업센터’ 개소

중기부, 해외안착·성장 집중지원

국내 스타트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거점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테헤란로 저스트코타워에서 싱가포르, 스웨덴, 핀란드에 있는 ‘K-스타트업센터(KSC)’ 개소식을 갖고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안착과 성장을 집중 지원한다.

이번 KSC 개소식은 행사장 현장뿐만 아니라 스웨덴, 핀란드 등 각국에서 액셀러레이터, 벤처 투자자, 유관기관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코로나19로 물리적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K-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의지를 다졌다.

KSC는 현지 네트워크와 자금, 입주 공간 등을 모두 지원해 스타트업의 현지 창업생태계 안착을 돕고 국가 간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플랫폼이다.

지난해 인도 뉴델리, 미국 시애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KSC를 연대 이어 올해 들어선 스웨덴 스톡홀름, 핀란드 헬싱키, 싱가포르에도 열거됐다.

한편, 올해 K-스타트업 센터 6개국에 진출할 기업을 모집한 결과 92개사 모집에 총 279개사가 신청해 3.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코로나19의 위기에 도 K-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코로나 책임공방, 美·中 분쟁확산 우려

# 中企 51% “수출 등 악영향” 걱정

중기중앙회, 수출기업 300곳 조사 분쟁확산 예상기간 ‘1년 이내’ 61% 예상되는 피해 71% ‘수출감소’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을 놓고 미국과 중국간 떠넘기기가 무역분쟁으로까지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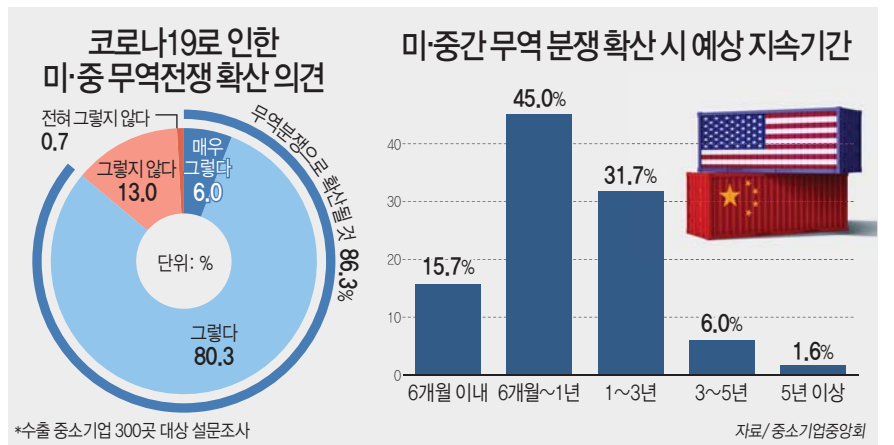
절반 정도는 이들간 무역분쟁이 수출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0곳 중 4곳은 별다른 대응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중기중앙회가 수출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미·중 무역 분쟁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조사’를 실시, 8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3%가 코로나19 관련 책임공방이 무역분쟁으로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미국, 중국과 교역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우려가 더욱 컸다.

‘무역분쟁으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란 답변은 13.7%에 그쳤다.

미·중간 무역분쟁 확산시 예상되는 기간으로는 ‘6개월~1년’이란 답이 45%로 가장 많았다. ‘1~3년’은 31.7%, ‘6개월 이내’는 15.7%였다. 이 가운데 중국 수출기업들은 예상 영향 기간을 ‘1~3년’으로 가장 많이 꼽았다.



분쟁이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절반이 넘는 51.3%의 기업이 ‘부정적 일 것’이라고 밝혔다.

‘긍정적 일 것’이란 답변은 1.7%에 그쳤다. 나머지 47%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상되는 피해는 ‘전 세계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가 71.4%로 가장 많았다. 이는 무역분쟁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15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다. 또 ‘미·중 환율 전쟁으로 인한 변동성 증가’(38.3%), ‘중국 시장 위축에 따른 대중국 수출 감소’(34.4%) 등도 예상되는 주요 피해로 꼽혔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대응전략을 묻는 질문에 42%가 ‘별도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해 대외 리스크 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거래처 및 수출시장 다변화(32.7%)’,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

자 확대(17.3%)’, ‘환변동 보험 가입 등 환리스크 관리 강화(17.0%)’, ‘생산기지 이전(4.7%)’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한편 미·중 분쟁 위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중점 과제(복수응답)로는 ‘수출 다변화를 위한 해외시장 정보제공 강화(41.7%)’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37.0%)’, ‘환율 변동 대응 등 외환 시장 안정화(32.3%)’ 등도 뒤를 이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미·중간 코로나19 책임공방과 홍콩 보안법 통과로 양국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무역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확산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수출 중소기업에게 최악의 상황으로, 정부는 시나리오별 중소기업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耆 노영민, 무주택자 된다... “이달 반포 아파트 처분”

청주 아파트 처분 이어 추가매각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달 안으로 ‘뚝뚝한 한 채’로 불린 서울 서초구 반포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진에게 실거주 외 주택 처분을 강력히 권고한 노영민 실장조차 충북 청주 소재 아파트 처분에 나선 데 따른 비판이 거세지자 추가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밝힌 ‘주택은 투자가 아닌 주거 목적이야 한다’는 부동산 정책 기본 원칙에 노 실장이 제대로 따르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 강남 불패 신화’를 입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여론 내에서도 노 실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바 있다. 노 실장은 이 같은 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에 8일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엄격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실장은 이어 청주 소재 아파트는 매각한 사실을 밝혔다.

한편, 노 실장은 서울 반포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먼저 매각한 데 대해 “BH(청와대) 근무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한 데 따른 스스로의 실천이었고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워져 있던 점 등이 고려됐다”고 해명했다. /최영훈 기자

## 농식품부 ‘농산물기획전’ 매출 43억 성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역농산물의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으랏차차 우리농산물’ 온라인기획전이 6월 한 달간 43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이번 기획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국내 대표 이커머스 7개사를 통해 6월부터 3개월

간 운영하며, 7월에는 육선과 G마켓을 통해 300여개 농가의 우수상품을 온라인 직거래로 판매한다. 특히, 각 지자체에서 추천한 오미자, 더덕 등의 지역 특산물부터 수박, 참외 등 계절과일까지 다양한 상품에 대해 품목별로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 6월 쿠팡과 11번가를 통해 진행

한 첫 번째 기획전은 43억원 매출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7월 옥션, G마켓에 이어 8월에는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를 통해 한 달간 전용기획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전을 위해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농가의 이커머스 판매사 입점을 지원하고, aT와 이커머스는 할인쿠폰 발행, 판매수수료 할인, 상품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등 지역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돕는다. /한용수 기자 hys@





## 3000원 구내식당에 뷰티샵·카페, 자체 병원까지 직원을 내 몸같이, '바프' 성장비결

(바디프랜드)

### 체험기 바디프랜드 본사

회사 공간 곳곳에 예술품 가득  
구성원 10명 중 1명, 직원 위한 직원  
5월 매출 656억... 창사 이후 최대

‘구성원 10명 중 1명은 직원을 위한 직원.’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바디프랜드 본사에 들어서면 화려한 예술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들 예술품은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가 ‘예술품을 자주보면 수명이 연장된다’는 기사를 읽고 들여놓은 것들이다.

바디프랜드 본사 1층 오른쪽에 있는 외부인과 직원들을 위한 카페도 마찬가지. 사내 카페에 있는 예술품과 오락 시설들이 여느 회사와 달리 활기찬 기운을 선사한다.

회사 공간 곳곳에서 분위기를 돋우는 이들 예술품은 큐레이터 출신 직원들이 모인 아티팀이 직접 기획해 설치한 것들이다. 아티팀은 작가와 협업해 작품을 대여 후 본사에 전시한다. 추후 판매로도 이어진다.

지하 1층에는 직원을 위한 사내 카페와 미용실, 네일샵, 헬스장, 꽃집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사용요금도 눈에 띈다. 카페와 사내 식당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싸게 이용할 수 있다.

바디프랜드의 한 직원은 “강남 일대에서 3000원으로 어떻게 식사 해결을 하겠느냐. 품질도 정말 좋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바디프랜드’ 도곡타워 본사 1층 사내 카페 모습. /백지연 기자



‘바디프랜드’에서 운영하는 사내 의원의 모습. /백지연 기자

&D센터에서 근무하는 8명의 의사가 진료를 맡는다.

정 팀장은 “보험 적용 진료는 사실 외부 병원과 큰 차이가 없지만, 비보험 영역은 (외부 병원에 비해)정말 차이가 크게 난다”며 “치과의 인기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콜센터 직원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전임 대표의 관심이 많았다. 사내 복지시설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면 고객 응대도 더 잘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바디프랜드는 향후 더 많은 직원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직원복지에 대한 성과를 문자관계자는 “성과를 지표로 나타내긴 어렵지만, 매출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5월 당시 월 기준으로 656억의 매출을 기록, 창사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6월에도 440억원 가량의 매출을 거둬 전년 동기 대비 10% 실적이 늘었다.

/백지연 기자 wdus0248@metroseoul.co.kr



호서대가 7일 아산캠퍼스 본관에서 ‘2020 호서발전연구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실무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호서대

## 호서대, ‘2020 호서발전연구회’ 출범

호서대는 ‘2020 호서발전연구회’ 출범식을 7일 아산캠퍼스 본관에서 개최하고 실무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구회는 총장 직속으로 대학 내 구성원들의 개선요구 사항 또는 대학발전을 위한 제안사항을 받아,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도모하고 대학발전의 핵심 키워드인 ▲AI ▲4차 산업혁명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과 대학발전을

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호서발전연구회 위원장을 맡은 정상희 부총장은 “호서발전연구회는 대학 내 상시운영 연구회로 국책사업, 발전계획 및 대학평가 등 우리 대학의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해왔다”라며 “특히 이번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여 교수와 직원이 하나돼 대학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현진 기자 hnj@

### 대교협

## 대입 정보 박람회 취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3일부터 나흘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2021학년도 수시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취소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교협이 매년 여름방학 시기 수험생들에게 대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박람회는 올해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올해 149개 대학의 참가 신청을 받았으나 최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확산하면서 대교협은 방역 당국 등과 협의 끝에 취소를 결정했다. 등교 개학 연기로 박람회 기간 기말고사를 치르는 고교가 많아 학생들의 참여가 쉽지 않다는 현실도 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현진 기자

## 첫 모평 난이도 ‘대체로 평이’

###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작년 수능 비해 국어, 수학나형 쉽고 수학가형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비한 출제기관의 첫 모의평가가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교 수업이 파행 운영됐지만 재학생과 재수생의 유불리는 드러나지 않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에 따르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영역은 139점, 수학가형은 143점, 수학나형은 140점이었다. 작년 수능과 비교하면 국어와 수학나형은 각각 1점, 9점 하락했으나, 수학가형은 9점 올랐다.

표준점수는 학생의 원점수가 평균성적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나타내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울수록 평균이 낮아져 표준점수 최고점이 올라가고, 시험이 쉬우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내려간다.

작년 수능과 비교해 국어와 수학나형은 쉽게, 수학가형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는 의미다. 다만, 수학나형은 지난해 수능에서 매우 어렵게 출제된만큼 이번 시험에선 적정 난이도로 출제됐고, 최근 수능에서 쉽게 출제돼 변별력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던 수험가형도 적정 난이도로 상황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영역별로 국어영역은 1등급 커트라인이 132점으로 지난해 수능(131점)보다 1점 올라 비슷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 1등급을 맞은 학생 비율은 4.41%로 지난해 수능(4.82%)보다는 소폭 축소됐으나 만점자(표준점수 최고점) 비율은 0.3%로 작년 수능(0.2%)보다 확대됐다.

자연계열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 가형의 1등급 커트라인은 132점으로 4점 상승했다. 1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은 5.01%로 작년 수능(5.63%)보다 줄었고, 만점자 비율(0.2%)도 0.4%포인트 축소됐다.

수학 나형은 135점까지 1등급을 받았다. 1등급 커트라인은 작년 수능과 같았으나 1등급 학생 비율은 4.54%로 작년(5.02%)보다 축소됐다. 만점자 비율은 0.2%에서 1.2%로 많아졌다.

절대평가 전환 4년차를 맞는 영어 영역의 경우 상·하위권 간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1등급 학생 비율은 8.73%(3만 4472명)로 작년 수능(7.43%)보다 많아졌지만, 2~4등급(44.8%)이 크게 줄고, 6등급이하(33.93%)는 증가했다.

사회탐구 영역은 1등급 커트라인 표준점수가 모든 과목에서 지난해 수능보다 1~7점 높았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경제(72점)가 가장 높았고, 윤리와 사상(67점)이 가장 낮았다.

과학탐구 영역도 1등급 커트라인 표준점수가 작년 수능보다 모두 1~8점 상승했다. 화학Ⅱ의 표준점수 최고점(85점)이 가장 높았고, 물리학Ⅰ의 표준점수 최고점(68점)은 가장 낮았다.

평가원은 6월 모의평가 결과 고3 재학생과 졸업생 간 성적이 코로나19 이전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한용수 기자 hys@

## 건국대 김성민 교수, 한국철학회 회장 선출

건국대는 김성민 문과대학 철학과 교수(사진)가 최근 열린 한국철학회 정기총회에서 제52대 차기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8일 밝혔다. 임기는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0일까지이다.

한국철학회는 1953년에 설립됐으며, 500명 이상의 정기회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철학 분야의 국내 최대



임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규모 학술단체이다. 김성민 교수는 학생복지처장, 문과대학장을 지냈으며 현재 교직원연구회 인문학연구회장 및 통일인문학연구단장을 역임하고 있다.

## 동국대-도로교통공, 교통 신기술 개발 맞손

### 공동 연구개발·학술행사 등 협력

동국대와 도로교통공단이 8일 동국대 로터스홀에서 연구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동국대와 도로교통공단은 상호 간 연구 교류 활성화를 통해 연구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교통부문 신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 등 다학제적 노력을 함께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자율주행차 및 교통빅데이터 부문의 신기술 개발과 법제 개선 등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능동적



(왼쪽) 윤성이 동국대 총장, (오른쪽)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동국대

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 연구개발과 학술행사 개최, 연구인력 교류 등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 강도 높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용산구 한남동 'DK밸리뷰' 반사효과 누리는 중

##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 사업이라고 불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17년만에 '현대건설' 시공사 선정

앞쪽엔 한강, 뒤쪽엔 남산이 있는 서울의 금싸라기 땅, 한남 3구역에 아파트 198개동 5,616가구인 미니신도시 급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현대건설이 사업비 규모만 7조원에 달하는 서울 최대 재개발 사업인 용산구 한남3구역을 품에 안았다. 아파트명은 '한남디에이치더로얄'이다. 단지내에 상업시설로 현대백화점을 입점시키고, 세계적인 상업용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에비슨영과 협업해 시설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용산구 한남동 일대 111만㎡ 부지를 재개발하는 한남 재개발 사업은 1~5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1구역을 제외한 2~5구역이 재개발 사업이 진행중이며 이번에 현대건설 시공사를 선정한 3구역의 진행속도가 가장 빠르다.

## 소형 오피스텔 'DK밸리뷰 한남' 아파트 규제 강화에 상대적 인기

'DK밸리뷰 한남'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우수한 입지를 갖춘 뛰어난 상품성에 아파트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피스텔에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권의 21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주택 관련 대출 문턱을 높여 '빚내서 집 사기'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번 대책의 대표적인 규제는 역시 '대출'이지만 대출 규제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무주택자 등에게도 이 같은 규제가 가해져 신규 진입이 어렵다. 대출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주택 구매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실수요자들은 이번 규제를 기점으로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전국 69곳, 투기과열지구 48곳으로 늘어났다. '규제지역 대출 제한'에 걸려 돈 빌리기가 어려워져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2~30대 젊은 사회 초년생들 중에 은행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지배적이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내에 그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때문에 전세로 나올 집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일괄적 규제로 집을 못 사게 하니 전세로 눌러앉은 이들이 늘어 전셋값이 폭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현실적인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젊은 수요자들은 꼭 아파트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거형 오피스텔을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파트 전셋값 정도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진다. 아파트 못지 않은 상품 설계를 선보이는 만큼 굳이 아파트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 도심 녹지 더할 프리미엄 'DK밸리뷰 한남' 용산공원과 한남근린공원을 정원으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단지 안팎의 녹지 비율 등 친환경 요소를 고려하는 수요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도심은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친환경 예코 프리미엄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공원과 한남근린공원 및 한강과 인접해 있어 '도심 녹지 더할 프리미엄'을 갖춘 곳이다. 서울시가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근린공원 터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해 이름으로만 존재했던 공원을 실제 조성된다.

## 풍수명당으로 예로부터 재벌 총수 및 연예인들이 선호하는 전통적인 부촌

서울 용산구 한남동은 하늘이 내린 터로 조선시대부터 해상교통과 물류유통의 중심지였다. 1920년대 후반 도시가 확장되면서 남산의 남쪽을 주거지로 만드는 작업이 시작됐고, 1930년대 후반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이태원 일대의 신축 주거지로 바뀌면서 오늘날 '한남동'이라는 고급 주거지의 기반이 만들어진다.



## 한남동에 투자가치 높은 주거용 오피스텔 'DK밸리뷰 한남' 분양 스타트

### 서울시내 최고의 부동산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지역 자식한테 물려줘도 되는 확실한 미래가치에 가격까지

지하철 경의중앙선 한남역 도보 5분 거리 초역세권에 소비자 니즈를 충족한 특화설계로 다양한 타입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DK밸리뷰 한남'이 인기리에 분양 중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113-2번지에 들어설 예정인 'DK밸리뷰 한남'은 지하1층~지상10층 2개동에 도시형 생활주택 28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56실 규모로 조성되며, 주차시설은 지상과 지하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지하 1층~지상2층에는 근린생활시설 10실이 들어간다. 이따른 고강도 규제로 아파트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이 큰 인기를 누리며 뚝뚝이 몰리고 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 상가, 빌딩 등에 비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어 안정적인 투자상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하면서 아파트는 소형 아파트조차도 10억원을 훌쩍 뛰어 넘으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투자 가능한 오피스텔로 투자자들의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 소액투자인 만큼 진입장벽도 낮고 환금성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간 아파트에 몰리던 투수들은 강도 높은 대출 제한과 주택취득자금조달제한 등 새로운 제도와 정부의 고강도 규제와 금융권의 대출 규제 등 장벽에 가로막혀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규제에서 벗어난 'DK밸리뷰 한남'의 인기는 높다

'DK밸리뷰 한남'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는 주거형 소형 오피스텔로 우리나라 인구의 54%에 달하는 1~2인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주거형태다.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세대들과 인근 강남 및 광화문, 종로 등 서울 도심권 접근성이 뛰어나 직장인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용산구는 미니신도시 및 용산공원 정비구역 계획사업, 한남 재개발 촉진구역 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 효과가 풍부하며, 단지가 들어서면 용산의 노르자 입지 한남동은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요충지로 서울시내 최고의 부동산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한남동 소재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사업지 인근 한남권 공동주택이 평당 약 4,000만~8,500만 원, 오피스텔은 평당 약 4,500만~7,160만 원의 시세형성에 한남동 리드 아파트 한남 더힐이 평당 분양가 대비 6년 간 약 4,800만원, 한남 아이파크가 평당 분양가 대비 3년 간 약 27억 원 시세 상승을 했다"며, "매매 및 임대 선호도 높은 실사용 면적 10~11평형 구성된 DK밸리뷰 한남은 미래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자식한테 물려줘도 되는 확실한 미래가치에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문의 1811-0277



## 한남대교만 건너면 바로 강남생활권! 광화문, 종로 등 서울 도심 접근성도 뛰어나

'DK밸리뷰 한남'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한남역이 도보 5분 거리이며,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도보 8분, 한남근린공원 도보 10분, 서울용산국제학교가 도보 20분에 위치

##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한 한차원 높은 공간 효율성과 특화설계로 개성 있는 현대인들의 만족도를 높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 113-2번지에 들어설 예정인 'DK밸리뷰 한남'은 지하1층~지상10층 2개동에 도시형 생활주택 28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56실 규모로 조성되며, 2021년 04월 완공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2층에 근린생활시설 10실이 들어가며 주차시설은 지상과 지하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등 6개 TYPE 총 56세대가 2층~8층에 들어선다. 'DK밸리뷰 한남'은 아파트 같은 혁신적인 평면을 구현한 3BAY 형식에 발코니 확장을 통해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 했으며, 한차원 높은 공간 효율성을 고려하여 실거주자의 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했다. 또한 다양한 타입을 제공함으로써 입주자 선택의 폭을 넓힌 특화설계로 개성 있는 현대인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DK밸리뷰 한남의 홍보관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28 강남 스위트빌 2층에 마련되어 있다. 사전예약 후 방문한 고객은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11평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7층~10층에 A TYPE 2세대, A1 TYPE 2세대, B TYPE 4세대, B1 TYPE 2세대, C TYPE 2세대, D TYPE 16세대 등 6개 TYPE 총 28세대가, 전용면적 10평형의 주거형 오피스텔은 A TYPE 6세대, A1 TYPE 6세대, B TYPE 12세대, B1 TYPE 6세대, C TYPE 6세대, D TYPE 20세대

**최고의 입지가 최고의 프리미엄을 만듭니다**  
**한강과 남산을 동시에 누리는 프리미엄!!**

DK밸리뷰 한남

부촌 프리미엄이 있는 배산임수의 명당 지역에 한남역(경의중앙선) 초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 같은 혁신적인 평형의 혁신적인 인테리어가 더해진 미래가치가 높은 입지적 프리미엄의 완성!

강남

한남동 프리미엄  
DK밸리뷰 한남

24시간  
문의전화

**1811-0277**





**NH농협은행, 육군 제5보병사단에 위문품 전달**  
NH농협은행은 지난 7일 농업·공공금융부문 지준섭 부행장(첫출원측 네번째)과 직원들이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육군 제5보병사단(열쇠부대)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토방위에 힘쓰고 있는 국군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기획됐으며, 위문품으로 무더운 여름철을 나기 위한 수박 500여 통과 컵라면 220박스 등을 전달했다. /농협은행

## SK루브리컨츠 “물류 기사님 응원합니다”

22일까지 물류기사 2000명에  
지크 윤활유 6만리터 무상 증정



SK루브리컨츠 구성원이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지크스테이션 평택포송점에서 SK 지크 윤활유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SK루브리컨츠가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는 물류 기사들을 응원하기 위해 친환경 윤활유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SK루브리컨츠는 8일 이달 22일까지 2주간 물류 기사 총 2000명에게 SK ZIC(지크) 윤활유 총 6만리터를 무상으로 증정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언택트 생활방식이 확산되면서 밤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배송해 ‘숨은 영웅’으로 불리는 물류 기사들에게 작은 힘을 보태고 응원하는 차원에서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매년 배출이 적은 친환경 윤활유 사용을 장려해 환경 문제를 모두 함께 개선하자는 의미를 더했다.

대상은 최대 적재량이 10톤 이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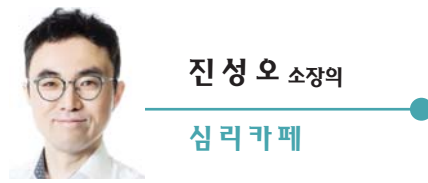
덤프트럭, 탑차, 카고차량 등 화물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다. 응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는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응모하기’ 버튼을 누르고, 전국 27곳 윤활유 교환소 중 제품을 받고 싶은 교환소를 지정해 차량 정보 등 이벤트 참여를 위한 필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SPC그룹, 보건복지부와 비대면 물품기증 캠페인**  
SPC그룹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보건복지부 2020 응원해요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임직원 물품기증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2020 응원해요 캠페인’은 다양한 나눔 실천 방법을 소개하여 전국민의 일상 속 나눔 참여를 응원하는 나눔 문화 확산 캠페인이다. SPC그룹은 프로그램 중 첫 번째 기업으로 참여하며 양재사옥에서 7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다. /SPC그룹



**오비맥주, ‘캔크러시 챌린지 기부금’ 끌림에 1천만원 기부**  
오비맥주가 ‘2020 캔크러시 챌린지’ 환경 캠페인을 통해 적립한 기부금을 소셜벤처 ‘끌림’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오비맥주 배하준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주신자원 고물상에서 열린 전달식에 참석해 끌림 송형우 대표에게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끌림은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소셜벤처다. 배하준 오비맥주 대표(오른쪽 세 번째)와 장유태 오비맥주 부사장(오른쪽 첫 번째), 송형우 소셜벤처 끌림 대표(왼쪽 두 번째)가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비맥주



진성오 소장의  
심리학카페

의사가 환자에게 진짜 약이라고 하고 가짜 약을 투여해도 ‘좋아질 것’이라는 환자의 믿음 때문에 병이 낫는 현상을 말할 때 플라시보 효과란 표현을 쓴다. 실제로 약이 턱없이 부족했던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많이 쓰였던 방법이며, 이러한 심리현상을 플라시보 효과 또는 위약 효과라고 한다.

플라시보(placebo)는 사실 라틴어로 ‘마음에 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플라시보는 실험자나 피험자가 서로 플라시보 약물이 처방되는지 몰라야 한다. 이를 ‘이중맹검 검사’라고도 하는데 이는 정신약물학이나 약물정신의학에서 핵심적인 통제 요소이다.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간 경우 응급실 병상에 누워 별로 처치를 받지 않았는데 아픔이 사라지는 것 같은 경험사나 감기에 걸렸을 때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서 먹으면 낫는 경험사들은

## 플라시보, 노시보

주변에서 혹은 스스로 흔히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좋아질 것이란 믿음에서 비롯된 플라시보 효과는 사실 정신약물을 개발하는 연구원들에게는 매우 골치아픈 것이기도 하다.

특히 심리학 실험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대기 명단(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지만 해도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현상 때문에 진짜 약물의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하물며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 실험에서는 이러한 플라시보 효과는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플라시보 효과는 무시할 수 없고, 실제 많은 학자들이 이 효과를 인정하며 더 나아가 이 효과를 치료에 이용해보려고도 한다. 분명한 것은 인간의 심리가 신체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심리 현상이 플라시보 효과이다.

믿음이 산을 옮기지 못하는 못하더라도

가끔 두통을 없앨 수는 있고, 진짜로 믿으면 어쩌면 산도 옮길 수 있는데 아마 그것도 플라시보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플라시보와 반대로 ‘노시보(nocebo)’는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가짜라고 믿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플라시보 효과가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의 긍정적인 효과를 반영한다면, 노시보 효과는 ‘부정적인 암시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노시보 효과는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 물질인데도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병이 생기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경우까지 발전하기도 한다.

좀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해야 할까? 노시보도 플라시보와 같이 마음의 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실수나 상실을 통하지 않고 어떤 것들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 수 없다는 모순된 존재이기도 하다.

만일, 우리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경제적인 측면까지 고려할 때 플라시보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당신의마음연구소장

## KGC인삼공, 세계최고 공인시험기관 인증

인삼·홍삼분야 KOLAS 신규인증

KGC인삼공사가 인삼 및 홍삼분야에서 세계최고의 공인시험검사기관(KOLAS)임을 인정 받았다. KGC인삼공사는 최근 인삼 진세노사이드 및 작물보호제 분석규격 추가와 미량영양성분 분석에 대한 KOLAS 신규인증을 획득하였다고 8일 밝혔다.

앞서 KGC인삼공사는 지난 2010년 ▲작물보호제 ▲중금속 ▲식품일반성분 ▲미생물에 대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난 2016년에는 세계 최초로 ‘인삼 진세노사이드 성분’ 분석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증된 바 있다.

이번 ‘인삼 진세노사이드 성분’ 분석규격 및 안전성 분석항목에 대한 추가



KGC인삼공사 한국인삼연구원 전경. /정관장

인정이 KGC인삼공사가 인삼관련 분석연구에 있어서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기준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KGC인삼공사가 획득한 총 6개분야 11규격 402개 항목의 시험성적서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총 104개국 102개 해외시험인증기관의 공인성적서와

동등한 국제효력을 갖게 된다.

국내 홍삼의 해외 수출시 인증 받은 항목에 대해서 별도의 시험이나 제품 인증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장 최종희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신승일

◆**IBK투자증권** [보임] ○본부장 △장외파생상품본부장 박기현 ○부장 △혁신기업분석부장 김운호 △기간산업분석부장 김은갑 ○센터장 △IBK WM센터 시화공단 센터장 이상용 △IBK WM센터 평촌 센터장 고병하 ○팀장 △자산관리팀장 이병준 △채권운용팀장 인승진 [승진] ○이사 △PE팀장 김덕근 △전문사모운용2팀장 주명건 △정보시스템부장 강용원 ○부장 △IBK WM센터 목동 센터장 이영국 △법인영업팀 박현우 △구조화금융1팀 임승현 ○차장 △IBK WM센터 천안 박혜란 △부동산금융2팀 우석호 △프로젝트금융1팀 신현호

◆**기술보증기금** ○본부장 △호남지역본부 운영팀 △경기지역본부 남광일 ○부서장 △사회 가치경영부 김동준 △기술평가부 이종학 △성과평가팀 김영탁 △재기지원부 이동표 △ICT

운영부 김태창 ○지점장 △서울 김경욱 △부산 장영수 △대구북 흥원우 △충주 박예훈 △세종 이대일 △죽산 최철웅 △진주 김종빈 △목포 박종기 △제주 소인섭 △군산 김대균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김상호 △서울서부기술혁신센터 노공빈 △광주재기지원센터 장재혁 △대구서 이광열 △서초 윤정철 △의정부 김경태 △부천 김영도 △김포 박동진 △성남 이찬호 △안양 김창수 △안산 최해성 △오산 김홍배 △관교 권기철 △화성성심성학 △천안 김상호 △아산 김기진 △사상 박춘주 △동래 김세현 △사하 박동만 △창원 김형광 △울산 나현 △김해 최낙현 △양산 하용운 △경산 김기홍 △광주 임광식 △광주서 김태주 △중앙기술평가원 정규열 △특허공제운영센터 안일성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 이세용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 신항기 △인천기술혁신센터 오은식 △부산기술혁신센터 허윤석 △서울동부재기지원센터 이원표 △수원재기지원센터 민광춘 △대전재기지원센터 황태석 △부산동부재기지원센터 정용영 △대구재기지원센터 오한

목 ○수석팀장 △인사부 김동기 △ICT운영부 김재운 △대구 윤수혁 △부산 이범기

### 부음

▲추곡희(전 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 교수)씨 별세, 이명수(뉴욕대 로스쿨 미국아시아법 연구소 선임위원)씨 모친상, 홍지훈(미국 화이트 엔케이스 로펌 서울지사장)씨 장모상, 이상완(전 삼성전자 사장)·상운(호성 부회장)씨·홍지수(위워크)씨 조모상 = 7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0일 오전 9시, 장지 모란공원, 02-2227-7590.

▲임정혜 씨 별세, 광복물(권은희 국회의원 보좌관) 씨 모친상, 조인숙(광주시청) 씨 시모상 = 8일 오전 10시, 전남 강진군 산림조합추모관 1층 1호, 발인 10일 오전 10시, 061-430-5444.

▲신경애씨 별세, 김동국(대신증권 신탁사업부부장)·박해석(삼성전자 플래시PE 수석)씨 장모상 = 6일 오후 8시 30분,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02-2290-9442.



# ‘동행세일’ 막판 스퍼트... 주말 유통가 ‘큰 장’ 선다

**롯데백 2차 면세상품 대전 진행**  
총 13개 브랜드, 70억 규모 물량

**현대백 주말 바캉스상품 특별전**  
빈스·이자벨마랑 등 최대 60%

**갤러리아 명품관 ‘썸머 씨트러스’**  
팝업스토어서 휴양지패션 등 준비



동행세일이간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있다. /현대백화점



갤러리아 명품관 바캉스 시즌상품 팝업스토어. /갤러리아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가는 마지막 주말 고객 잡기에 나선다.

롯데백화점은 동행세일 마지막 주말 3일간 2차 면세 명품 대전을 진행한다.

2차 행사에는 인기가 많은 핸드백, 구두 등 잡화를 중심으로 행사장을 구성하고, 1차에 참여한 기존 브랜드 7개에 추가로 6개 브랜드를 더 보강해 총 13개 브랜드의 상품을 판매한다. 2차 행사를 위해 롯데백화점은 추가로 50억원의 면세점 상품을 직매입했으며, 총 상품 물량은 70억원에 달한다.

2차 면세 명품 대전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마무리 짓는 대표 행사로 10~12일 전국 롯데백화점과 아울렛에서 공개된

다. 행사 진행 점포는 백화점 미아점, 평촌점, 분당점, 일산점, 전주점, 동래점, 프리미엄 아울렛 이천점 등 총 7개점이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15개 전 점포에서 동행세일 마지막 주말 3일을 맞아 ‘바캉스 상품 특별전’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패션·잡화 등 바캉스 용품과 냉방 가전 등 물량을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려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무역센터점은 행사 기간 동안 지하 1층 대행사장에서 ‘컨템포러리 썸머 페어’를 진행한다. 행사에는 빈스·이자벨

마랑·조셉 등 2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원피스·블라우스 등 이월상품을 최초 판매가 최대 60% 할인해 선보인다.

판교점은 같은 기간 바캉스 패션 아이템을 최초판매가 대비 최대 60% 인하된 가격에 선보인다.

천호점은 오는 12일까지 13층 문화홀에서 ‘여름 리빙 특집전’을 열고, 에이스·본톤·다우닝 등 가구 브랜드의 상품을 최초판매가 대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갤러리아 명품관은 여름 시즌을 겨냥한 ‘썸머 씨트러스(Summer Citrus)’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썸머 시트러

스’ 팝업 스토어에서는 이태리와 프랑스 남부 여름의 느낌을 표방하는 콘셉트를 갖고 스웨터, 리조트웨어, 토트백, 니트모자, 파라솔, 러그, 선베드 등 휴양지 및 해변에서 어울리는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한다.

갤러리아 광고에서는 다양한 브랜드가 세일 행사를 진행한다. 덴마크 브랜드 바이탈렌버거가 10일부터 23일까지 이월상품 행사를 진행, 40% 이상 할인 판매한다. 또한 남섬북 브랜드 에피그램이 10일부터 12일까지 이월상품을 최대 60% 할인하여 판매한다.

대전 타임월드도 개점 41주년을 맞아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갤러리아 앱을 통해 16일까지 퀴즈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1만 지캐시를 증정한다. 또한 10일부터 16일까지 에이스침대가 단독 상품 기획전, 템퍼가 메가 워크를 통해 침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안할 예정이다.

신라면세점은 9일 오후 2시부터 면세 재고상품 3차 판매를 시작한다. 1·2차와 동일하게 자체 여행상품 중계 플랫폼 ‘신라트립’에서 판매한다.

로에베, 브라이틀링, 프레드릭콘스탄트, 스와로브스키 등 4개 브랜드의 상품 124종을 판매한다. 로에베는 LVM H그룹 계열사로 스페인의 명품 의류 및 액세서리 브랜드다. 또한 이번 3차 판매에는 시계 브랜드(브라이틀링, 프레드릭콘스탄트)와 명품 크리스탈 브랜드(스와로브스키)를 추가해 상품 다양성을 강화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로에베 해먹백, 브라이틀링 에비에이터8, 프레드릭콘스탄트 문페이즈, 스와로브스키 진저앵글 등이 있다. 가격은 면세점 정상 가격 대비 최대 40% 할인된 수준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11번가, 동행세일 열흘간 56억 판매 성과

**농수산물 등 2천여개 상품 특가진행**  
6개 기획전 운영... 방문자 51만 달해

오픈마켓 11번가가 코로나19 극복과 침체된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함께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통해 열흘간 56억 원 이상의 판매 성과를 거뒀다.

11번가는 지난 6월 26일부터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동참,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전라북도청, 농협 등 정부, 지자체 및 기관과 협업해 약 800여 곳의 지역 판매자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에 나섰다.

11번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농수산물, 과일, 채소, 축산, 공산품 등 2000여 개 상품을 특가에 선보였다. 행

사시작 열흘(6월26일~7월5일) 만에 11번가의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획전 방문자 수가 51만 명을 넘어섰고 열흘간 판매된 상품 거래액이 56억 원을 돌파했다.

행사 취지에 맞게 양질의 지역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생활용품 등 정부, 지자체 및 주요 기관들과의 협업으로 상품의 신뢰도를 높인 것이 주효했다. 11번가는 ▲제철 해산물을 모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해양수산부) ▲가성비 갑 ‘우수소상공인 특별 할인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농가 지역 특산물을 모은 ‘함께담는 상생장터’ (서울시) ▲우리 가족 건강한 먹거리 ‘전라북도 거시기장터’ (전라북도) ▲엄선한 우리 농산물 ‘같이사는

가치소비’ (농협) ▲전통시장 ‘청년물’ 할인 기획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6개 기획전을 운영 중이다.

제주농협과 함께 기획한 ‘햇 하우스 감귤’ (2.5kg)의 경우 열흘간 총 2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같은 기간 11번가의 전체 감귤 상품 판매의 2/3에 해당하는 성과로 판매량만 약 20톤에 달했다.

전라북도와 손잡고 선보인 ‘거시기장터’의 입점 판매자들의 경우 기존 온라인판매 성과가 미비했으나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참여해 열흘간 ‘팍조아 백제기정떡’, ‘허정수농부 각테일 토마토’ 등 대표상품 4가지로만 5000개가 넘게 팔려 8000만 원 가까운 판매고를 기록했다. /신원선 기자



이마트, 업계 첫 ‘무항생제 영계’ 선보

이마트가 8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무항생제 영계를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초복을 맞아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무항생제 두마리 영계’와 ‘토종닭’을 행사카드 결제 시 20% 할인 판매한다. /손진영 기자 son@

## 맥도날드, 4주간 치즈버거 170만개 판매

맥도날드가 트리플 치즈버거 출시 이후 최근 4주 간 전체 치즈버거 메뉴가 170만 개 이상 판매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맥도날드의 트리플 치즈버거는 풍부한 육즙의 순쇠고기 패티 3장과 부드러운 치즈3장이 합쳐져 진한 풍미와 맛을 선사하는 버거다. 특히 입안 가득 녹아드는 패티의 육즙과 함께 구운 양파의 풍미, 진한 치즈 맛이 한데 어우러져 환상적인 버거라는 찬사를 고객들로부터 받고 있다. 이러한 고객들의 호평에 힘입어 트리플 치즈버거는 지난달 11일



출시 이후 약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7일 만에 판매량 100만 개를 돌파했다.

트리플 치즈버거 출시 이후 패티와 치즈의 심플하고 클래식한 조합이 매력인 치즈버거 메뉴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함께 높아지면서 기존 메뉴인 ‘더블 치즈버거’의 판매량도 전월 대비 3.6배 급증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 롯데마트 “셰프가 만든 집밥 드세요”

잠실점에 ‘밀 시그니처 스토어’  
문어새우·짬뽕탕·BBQ폭립 등

롯데가 ‘집밥의 완전한 대체’를 목표로 신설한 ‘푸드이노베이션센터(FIC)’가 첫 결실물을 내놨다. FIC는 식사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식품 개발을 위해 지난 3월 대표 직속 조직으로 신설했으며, 전문 셰프와 식품 연구원, 브랜드 매니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롯데마트는 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점 델리 매장을 ‘밀 시그니처 스토어’ 콘셉트로 재단장했다고 밝혔다.

이 매장은 전문 요리사가 개발한 가정간편식을 모아 파는 곳이다. 가정간편식이 인기를 끌면서 대형마트가 확보한 인프라, 기술력 등을 접목한 고품

질 상품으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다.

기존 델리 매장은 치킨과 초밥 위주로 판매가 이뤄졌다. 밀 시그니처 스토어에선 FIC 소속 요리사들이 4개월간의 요리법 연구와 품평회 등을 거쳐 개발한 한식, 중식, 디저트 등이 판매된다. ‘문새(문어새우) 짬뽕탕’ ‘BBQ폭립’ ‘꺾바로우’ ‘숙지황 닭갈비’ ‘녹차 티라미수’ 등 유명 맛집에서 먹을 수 있었던 메뉴들도 마련돼 있다.

간편식의 특성에 맞게 제품을 담은 용기는 각 요리의 조리 방식에 맞게 제작됐다.

부대찌개, 짬뽕탕 등 찜개류는 다른 용기로 윗집 필요 없이 구입한 용기에 바로 끓여 먹을 수 있다. 잠실점은 인근



고객이 롯데마트 밀 시그니처 스토어에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쇼핑

2km까지 배달해 주는 ‘바로 배송’ 도입 점포라 온라인 주문 후 배달받는 것도 가능하다.

롯데마트가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조리 코너를 선보이게 된 것은, 최근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며 제대로 된 한끼를 즐기려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원선 기자

## 남양유업 ‘불가리스 Fit’ 2종 출시

남양유업이 2030세대의 장에 효과적인 발효유 ‘불가리스 Fit’ 2종(딸기, 플레인)을 새롭게 출시했다. 이들 제품은 외모와 미용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을 타겟으로 한 발효유다. ‘불가리스 Fit’은 ▲한 병에 1500억개의 살아있는 유산균 ▲피부 특화 원료인

이탈리아산 피쉬콜라겐 160mg 함유 ▲가벼운 하루의 시작을 돕는 저지방 발효유 ▲벨기에산 치커리화이버(식이섬유)가 함유된 제품이다. /원은미 기자





# 1년만에 200만 CJ회원... 식품전문몰 꿈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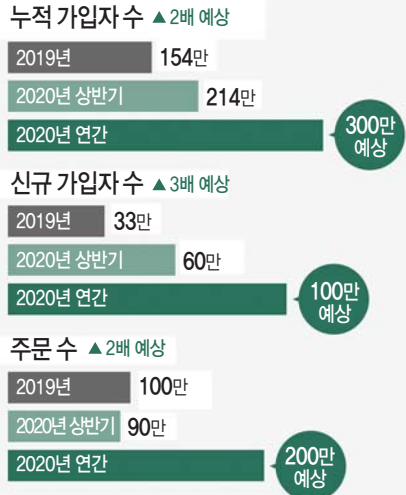
## CJ더마켓 1주년

올해 매출 700억 이상 달성 예상  
불거리 등 식문화 콘텐츠 체험 제공  
상반기 주문 건수 약 90만건 기록

CJ제일제당의 공식 온라인몰 'CJ더마켓'이 8월 1주년을 맞았다. 론칭 당시 표방했던 '가정간편식 전문몰'을 넘어 365일 건강한 집밥 생활을 제안하는 No.1 '식품 전문몰'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7월 오픈한 'CJ더마켓'은 소비자 호응 속에 1년 만에 200만 이상 회원을 보유한 종합 플랫폼 서비스로 성장했다. 기존 자사몰을 운영하며 축적된 역량과 노하우,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먹거리, 불거리 등 식문화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차별화를 꾀한 덕분이다.

올해 들어 성과는 더욱 두드러진다. 상반기에만 신규 가입자 60만명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하반기 16만명이 가



### 1년간 가장 사랑받은 제품 Best 3



입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성장했다. 주문 건수도 크게 늘었다. 상반기 주

문 건수는 약 90만 건으로, 반년 만에 지난해 연간 주문 건수 100만 건에 육박했다.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매출도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CJ제일제당은 올해 'CJ더마켓'이 7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기록한 500억원의 매출과 비교했을 때 40% 이상 성장한 수치다. 식품업계 자사몰 중 최고 매출 규모를 자랑하며 업계 선두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CJ더마켓 성장의 핵심 원동력은 '차별화된 서비스'이다. 한층 진화된 식문화 화를 이끌고 있는 다양한 상품 기획전과 밀키트 쿡킷, 고객 취향에 맞춘 메뉴를 제안하는 큐레이팅, 다양한 상품의 정기배송 등 CJ더마켓만의 서비스로 경쟁력을 다졌다. 또한 프리미엄 멤버십인 '더프라이' 제도를 강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며 충성 고객을 확보했다.

온라인시장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마켓팅, 정기 이벤트 등도 주요했다. 실제로 올해 처음 진행한 정기이

벤트인 'CJ더마켓 와우워크' 프로모션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에서 CJ제일제당 상품을 실속 있게 구매할 수 있다며 큰 화제가 됐다. '뉴노멀' 가성비 식품 소핑' 트렌드로 급부상하며 'CJ더마켓'의 인지도 상승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CJ제일제당은 향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소비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CJ더마켓'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소비자 식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식품전문몰'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 소비자들 'CJ더마켓'에서 모든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CJ제일제당의 다양한 제품은 물론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신선·제철식품, 대용량의 제품을 실속 있게 구매할 수 있는 B2B형 제품 등을 선보인다. HMR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대표기업인 만큼 고객의 식문화와 라이프스타일, 취향에 맞춰 메뉴와 상차림을 제안하는 상품 큐레이팅 서비스도 강화한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 이랜드 'OST'

### '미니언즈' 품은 굿즈 출시

이랜드에서 전개하는 주얼리브랜드 오에스티(OST)가 바캉스 시즌을 맞이해 유니버설스튜디오의 글로벌 인기 캐릭터 '미니언즈'와 협업한 컬렉션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컬렉션은 여름에 착용하기 좋은 미니언즈 메탈 손목시계, 귀걸이, 팔찌, 피어링 등의 주얼리와 함께 폰 케이스, 허브톡, 허브루프, 에어팟 케이스, 버즈 케이스 등의 잡화 상품으로 구성된다. 특히 여름 휴가시즌을 겨냥해 휴가 필수 아이템을 포함한 40여 종의 다양한 상품으로 기획해 선보였다.

/조효정 기자

## 한국피자헛

### "비용 추가 없이 피자 토핑"



한국피자헛(이하 피자헛)이 모든 프리미엄 피자 토핑을 별도의 비용 추가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라인업 확대에 나섰다 8일 밝혔다.

피자 옛지에 힘을 준 신메뉴 '얼티미트 치즈포켓'의 인기에 힘입어 기획했다.

이번 얼티미트 치즈포켓 라인업 확대에 기존 버거스테이크와 프리미엄 칼바사 소시지가 토핑으로 올라간 얼티미트 치즈포켓과 더불어 티븐스테이크&쉬림프와 이탈리아안살치차, 수퍼슈프림 등 피자헛의 모든 프리미엄 피자를 치즈포켓과 즐길 수 있다.

얼티미트 치즈포켓은 스위스 명품 라플렛 치즈, 부드러운 크림치즈, 쫄깃한 모짜렐라 치즈가 옛지에 가득 담겨있는 독특한 모양으로, 실제 치즈양이 피자헛 기존 치즈크러스트보다 2배 늘어났다.

출시 한 달 만에 30만개 판매를 돌파했으며, 주말 기준으로 2초에 1개씩 나갔다.

/조효정 기자

## 대웅제약, 필리핀 FDA에 임상계획 제출

### 코로나 치료제 개발 가속

#### 바이러스 역가 감소 효과 확인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 억제

대웅제약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DWRX2003(성분명 니클로사마이드)'의 임상시험계획(IND) 신청을 필리핀 식품의약품안전처(FDA)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대웅제약은 인도 중앙의약품표준관리국(CDSCO)에도 동일한 계획을 지난 5월 제출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가속화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인 '니클로사마이드'를 국내는 물론 해외로 확대하여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DWRX2003'는 이미 동물을 대상

으로 한 체내 효능시험을 진행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후 콧물과 폐조직에서의 바이러스 역가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또 폐 조직에서 바이러스가 제거됨에 따라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가 억제돼 폐 조직에서의 염증예방 효과도 확인한 바 있다.

대웅제약 필리핀 법인은 우루사, 베아제, 나보타 등 필리핀 식약처로부터 다수의 의약품 승인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현지 법인의 허가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임상시험 승인 후, 현지에서 'DWRX2003'의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후 대규모 2,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DWRX2003' 개발 완료 시 동남아 주변 국가에도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lee@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앞줄 오른쪽 다섯번째)과 이화의료원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이화 첨단 융복합 헬스케어 클러스터 입주기업 대표들이 함께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 첨단 융복합 헬스케어 기술개발 허브 구축

#### 이화여대의료원 협력사업 박차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첨단 융복합 헬스케어 기술개발허브(R&BD HUB)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이화 첨단 융복합 메디컬 클러스터는 ▲이화의료원 ▲이화여대 ▲이화의대가 주축으로 산·학·연·병이 함께 국제적인 첨단 융복합 헬스케어 기술개발 허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화의료원 연구진흥단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산학 협력 입주 기업을 모집해 총 10개 기업을 선정, 이대목동병원 의학과 B동 6, 7층에 이화 첨단 융복합 헬스케어 클러스터 산학협력관을 구축했다.

의료원은 이대목동병원에 문을 연

산학협력관이 ▲이대서울병원(첨단의생명연구원) ▲이화여대(기초과학연구소·뇌융합과학연구원) 등과 연결해 의료원과 의과대학 및 이화여대의 융복합 연구 학술 및 기술사업 협력을 증진시켜 국제 첨단 융복합 헬스케어 기술개발 허브를 구축한다.

의료원은 7일 오후 이대목동병원의 학관 B동 6층 및 10층 대회의실에서 산학협력관 개소식 및 입주 기업 공동 업무제휴 협약식을 갖고 사업추진에 나섰다.

이화의료원과 10개 입주 기업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신약 개발 임상 연구 협력 ▲기초의학 연구 및 산업화 협력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협력 사항 등을 협약했다.

/이세경 기자

## '창업 문의 ↑'... CU, 업계 첫 온라인 설명회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가맹 희망자들에게 원활한 창업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온라인 창업설명회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CU 창업설명회는 이전까지 본사에서 1대 다수의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생활방역 지침에 따라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전화상담 등으로 대체했지만 지속적인 창업 문의가 들어오면서 이달부터 온라인을 통한 창업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CU에 접수된 창업 문의는 2분기



CU 온라인 창업설명회 개최 /BGF리테일

들어서는 안정적인 창업 아이템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며 오히려 전년 대비 40% 가량 더 늘어났다.

CU 온라인 창업설명회는 이달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약 70분 동안 진행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스카치 하이볼' 위스키 시장의 새바람

롯데칠성음료가 '스카치하이볼' 인기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스카치 하이볼'은 침체된 국내 위스키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롯데칠성음료가 지난 4월에 선보인 제품이다.

'스카치블루'의 탄생 24주년을 맞아 출시한 '스카치 하이볼'은 자체 테스트

를 통해 최적의 비율로 '스카치블루'와 탄산수를 혼합해 스카치 위스키 특유의 풍부한 향, 청량감과 함께 느껴지는 깔끔한 뒷맛이 특징적이다.



/조효정 기자

## 동화약품

### 마시는 피로회복제 출시

동화약품은 마시는 피로회복제 '알프스B4'를 출시했다. 알프스B4는 1968년 출시된 동화약품의 피로회복제 브랜드 '알프스'를 최신 트렌드에 맞춰 새롭게 선보이는 제품. 알프스B4는 비타민B 4종(B1, B2, B3, B6)이 포함되어 피로 물질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 줄 수 있으며,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카르니틴을 비롯하여 타우린도 2000mg 함유되어 있다.

/이세경 기자





# 현대차, '상생캠페인'... 침체된 지역경제 살린다

### 전국 지역본부 주도 5개 영역 활성화 나서

현대자동차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선다.

현대차는 지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전국 20개 지역본부 주도로 ▲지역 농가 ▲골목상권 ▲전통시장 ▲소상공인 ▲침체 업종 총 5개 영역에서 '상생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7일 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처한 평택시 농가에서 쌀, 축산물 등을 구매해 식자재 상자 '희망 꾸러미'를 만들어 평택시 거주 독거노인과 저소득 조손 가정 등 긴급 생계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400여 개 가구에 전달했다.

이달 중으로 대전, 충남, 경북 지역에서 도 지역 농산물을 구매해 의료진에게 전달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평택시청에서 송성호 현대차 경기남부지역본부장(왼쪽 두번째)과 정장선 평택시장(오른쪽 두번째) 등 현대차와 평택시 관계자들이 식자재 상자 '희망 꾸러미' 전달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수유·구리·안양 지역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앞치마, 물티슈 등 위생 물품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연계 상생 활동과, 울산 관내 소규모 식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블루핸즈에서 직접 나와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골목상권 연계 상생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양성은 기자 ysw@metroseoul.co.kr

# 끝없는 악플과의 전쟁



### 기지수첩

구서연 (산업부)

국내 포털이 건강한 댓글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특정 분야의 댓글 공간 자체를 없애고, 댓글 작성자의 활동 이력을 공개하는 조치를 통해 이용자 스스로 댓글을 신중히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가장 먼저 행동에 옮긴 회사는 카카오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연예 뉴스 댓글을 폐지했다. 연예 뉴스 댓글에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와 명예 훼손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악성 댓글로 고통받는 연예인들이 비극적 선택을 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네이버도 지난 3월 연예뉴스 댓글을 폐지하고, 댓글 작성자의 활동 이력과 닉네임을 공개했다. AI 기술로 악성 댓글을 가려내는 'AI 클린봇'도 함께 운영 중이다. 네이버도 7일부터 연예뉴스 댓글을 폐지하며 건강한 댓글 공간을 마련하는데 동참했다.

하지만 악성 댓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포털에서는 악성 댓글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반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

른 SNS 공간에서는 여전히 악성 댓글이 활발하게 생성되고 심지어 늘고 있기 때문. 특정 공간을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님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연예인이 아닌 경우 포털에서의 악성 댓글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고, 연예 관련 뉴스인 경우에도 언론사가 사회 생활 영역으로 설정해두면 댓글을 다는 것이 가능하다.

댓글에 대한 여러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다. 악성 댓글을 남기는 일부 사용자들로 인해 평범한 사용자들이 댓글창에서 소통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악성 댓글을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포털에만 있다고 보는 시각은 지양해야 한다. 악성 댓글은 자유로운 행동을 할 의지를 가진 개인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이용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악성 댓글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필요하다. 개인에 따라 특정 댓글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이다. 악성 댓글에 대한 규정과 규제 방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악성 댓글이 단순히 얕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이용자 스스로 상기해야 할 것 같다. /yuni2514@

# LG전자·디스플레이, 환경부와 '포장재 재사용' 시범사업

### 포장재 사용 70% 줄일 것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포장재 재사용할 방법을 찾는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8일 경남 창원시 LG전자 창원 R&D 센터에서 환경부와 '포장재 재사용 가능성 평가' 시범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송재용 한국포장

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LG전자 H&A사업본부장 송대현 사장, LG디스플레이 구매그룹장 최영근 전무 등이 참석했다.

시범사업은 재사용 포장재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분석하는데 목적을 뒀다. 환경부에 최적의 포장재 재사용 시스템 구축과 재사용 확대 정책 수립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대상 품목은 LG전자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와 LG디스플레이의 올레드 패널 포장재다. LG전자는 완충재로 사용하던 발포스티로폼을 발포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고, 종이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LG디스플레이는 완충시트와 외부스티로폼 박스 등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포장재 사용을 70%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재용 기자 juk@

오늘의 운세 7월 9일 (음 5월 19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무리하지 말고 형편과 능력에 맞출 것. **48년생** 고목에 꽃이 피어하니 좋은 일이 있다. **60년생** 가겠다는 사람은 붙잡는 게 아니다. **72년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를 갚으러 온다. **84년생** 처음 먹었던 마음 그대로.
- 37년생** 흐르는 대로 내버려둬라. **49년생** 마음만 바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61년생** 자식에게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니 출중. **73년생**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는 형국. **85년생** 소리대로 일이 잘 풀리니 기쁜 하루.
- 38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 **50년생**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만족도가 낮다. **62년생** 최선을 다하면 기회가 주어진다. **74년생**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마라. **86년생** 비대한 자는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다.
- 39년생** 발등을 찍는 건 고개 탓이 아니라 내 탓. **51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친구를 잘 챙기자. **63년생** 어디서 부는 바람이 근심을 걷어간다. **75년생** 포장지 더 중요할 때도 있다. **87년생** 마음이 편치 않고 몸은 더 힘들다.
- 40년생** 비상금이 적절한 곳에 쓰인다. **52년생** 선불리 증여를 결정하면 후회한다. **64년생** 인생이 어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76년생** 머지않아 새벽이 올 것이니 대비. **88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지금은 소중히.
- 41년생** 하나를 뿌리고 둘을 얻는다. **53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된다. **65년생** 진퇴양난의 경우라도 노력하면 길이 열린다. **77년생** 물대리도 두드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89년생** 머리만 믿고 있다는 일을 그르친다.

- 42년생**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격. **54년생** 아랫사람을 잘 보살피야 만사가 편하다. **66년생** 입이 경솔하면 될 일도 틀어진다. **78년생** 일의 시작은 신용에서 비롯되니 작은 약속도 어기지 마라. **90년생** 보라색과 숫자 2가 행운을.
- 43년생** 자녀에게 지나친 간섭은 관계를 악화. **55년생**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선물이 들어온다. **67년생**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 상책. **79년생**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바라지 마라. **91년생** 선봉에 나서게 되니 주변의 질투를 받는다.
- 44년생** 배우자가 내게는 가장 큰 조력자. **56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원하는 바를 무사히 달성. **68년생** 보기 싫은 사람도 때로는 아쉬운 법. **80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는 날. **92년생**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떠나도 좋다.
- 45년생**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한다. **57년생**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69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부디 자중자애하시길. **81년생**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하니 내 마음도 봄. **93년생** 조금씩 굴지 말고 느긋하게.
- 46년생** 먼 곳에서 손님이 찾아오니 불청객이다. **58년생** 타인의 불행을 방관하지 마라. **70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면 마음만 다친다. **82년생** 망설임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94년생** 분위기를 바꿔 보는 것이 좋겠다.
- 47년생** 일시적 감정이 상대의 오해를 산다. **59년생** 현상유지만으로도 벅찬 하루 **71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지지 않으니 실망은 금물. **83년생** 약속한 일도 가볍게 보지 마라. **95년생** 하늘이 푸르니 마음이 상쾌하고 나아갈 길도 보인다.



# 김상회의四季

### 긍정하는 마음

옛날부터 사람의 일이란 관 뚜껑을 덮기 전에는 모른다는 말이 있다. 보통은 마주치는 일들에 일희일비하며 아등바등 살아간다. 중요한 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큰 흐름이다. 운이 좋으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며 운이 좋다는 건 사주팔자가 좋은 인생을 말하는 것이리라. 년월일시로 만들어지는 여덟 개의 기둥을 보면 운세의 흐름을 알 수 있으니 팔자가 좋으면 인생이 잘 풀린다. 사주가 좋아서 나쁜 일은 없지만 모두가 인생이 잘 풀린다는 보장은 누구도 하지 못한다. 누구나 뭔가 부족한 것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재물이 많고 관운도 좋은 길운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는 행복한 걸 모른다. 목(木)이 왕 하여 토(土)의 비 위장을 극하니 부정적 사고방식으로 돈이 많아도 인생하고 빠른 승진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평생을 굳고 찌푸린 얼굴로 살아간다.

그와 반대로 평범 이하의 사주를 타고난 사람이 있다. 돈은 항상 모자라고 다른 가족들도 얽혀산다. 그런 상황에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돈이 모자라면 아끼면서 살고 일이 꼬이면 언젠가 잘 풀릴 것이라 말한다. 그래서인지 그는 얼굴에 미소를 보이고 대체로 행복하게 살아간다.

두 사람을 보면 사주나 운세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을 대하는 자세라는 생각이다. 사람들은 사는 게 힘들어지면 팔자타령을 한다. 사주팔자가 나빠서 이렇게 안 풀린다고 여긴다.

팔자타령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삶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 돈에 인생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이라면 자연스럽게 좋은 운세가 따라 들어온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토쿠365**

문제제출: 손호성

3X3 스토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3X4 몬스터스토쿠는 가로세로, 3X4 박스에 1부터 9, A, B, C의 숫자, 영문이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정답

8	4	9	2	1	6
9	1	7	6	2	8
6	7	5	8	1	9
2	5	9	1	6	7
7	8	1	6	7	8
1	6	7	8	9	5
5	1	6	7	8	9
9	8	6	1	5	7
7	8	9	6	5	1
1	6	7	8	9	5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결합형 스토쿠 사무라이스토쿠 시리즈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s://sudoku365.net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448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587호



# AI가 하루 3.5만건 뉴스 수집... 입소문으로 고객 2만명

## AI 기업인

AI 글로벌 뉴스 서비스 '모야' 노재훈 시스메틱 이사

해외 주요매체 280개 모니터링  
뉴스내용 핵심 3문단으로 발췌  
해외뉴스 영어서비스 '폴로' 앱

최근 테슬라·아마존·애플·MS 등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기업의 소식을 빨리 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 외신에 뜬 기사들을 수집해 자동 번역해 구독자들에게 제공하는 AI 글로벌 뉴스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스메틱의 뉴스 앱인 '모야'는 해외 주요 매체 280개에서 AI 엔진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해 기업 뉴스가 나오면 자동 업데이트되는 방식이다. 핵심 내용과 주어, 동사 등을 파악해야 해 자연어 처리 기술이 적용됐으며, 뉴스를 가져오는 크롤링 기술이 적용됐다.

노재훈 시스메틱 총괄 이사는 "하루 평균 3만5000건의 해외 뉴스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최대 규모"라며 "2년여전 서비스를 선보인 후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입소문만으로 현재 고객수가 2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사고 판외화주식 결제액은 709억1053만달러로 지난해 총 결제액인 410억 달러의 2배에 달할 정도로 큰 폭으로 늘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주식 종목 공시나 뉴스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시스메틱의 AI 뉴스 서비스 앱 '모야'.

시스메틱

때문에 바로 알고 싶어 합니다. 뉴스를 가장 빨리 봐야 하는 사람의 첫 번째가 주식하는 사람으로 꼽힐 정도입니다. 하지만 해외 뉴스는 바로 알기가 어려워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주식 프로그램 뉴스 창을 계속 들여보아야 하는데, 이용자들에게서 더 이상 뉴스를 쳐다볼 필요가 없어 '삶의 질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모야서비스는 글로벌 기업을 종목으로 등록하면 카카오톡 알림처럼 알려준다.

"나스닥, 뉴욕증권거래소, 야후, 구글, 아마존 등에 상장 회사를 등록할 수 있는데, 현재 2만개 이상 회사들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번역 버튼을 누르면 구글 번역기로 자동번역해 보여주며, 감성분석을 통해 긍정적인 뉴스인지 부정적인지 알려줍니다. 특정 회사 뉴스가 어제는 긍정적인 내용이 많았고 오늘은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다는 내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뉴스 내용을 핵심 3문단으로 발췌해 보여주고,

경제·정치 등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갈지 지정하는 것도 AI가 담당합니다."

매일 글로벌 주요 뉴스 10개를 선별해 전문번역사가 번역한 뉴스도 구독자들에게 보낸다. 다만, 무료 서비스는 번역 뉴스 5건, 종목 등록 5개, 뉴스레터 1개, 10개 기업 공시 제공까지이며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원하면 월 4900원에 유료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모야의 유료 회원은 한번 가입하면 유지율이 80% 이상으로 높습니다. 특히 한번 앱에 들어오면 4~5분을 체류하며, 재방문률도 높습니다."

모야에서는 또 국내 뉴스매체 200여개에 뜬 내용을 포착해 국내 뉴스도 제공한다.

"퇴직연금에 관심이 많아 키워드를 등록하면 관련 뉴스가 쌓입니다. 등록한 키워드 뉴스를 '나만을 위한 뉴스레터'로 만들 수 있는데, 매일 일정시간에 24시간 발생한 국내 뉴스를 모아 개인 맞춤형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특히 모야 앱의 증권 섹션에서는 삼

성전자 등 주식 종목을 등록할 수 있다. 관련 뉴스, 공시, 리포트 등이 나오면 바로 알려준다.

시스메틱은 또 최근 해외 뉴스만을 전문으로 모아 영어로 서비스하는 '폴로(FOLO)' 앱도 오픈했으며, 미국 시장을 타깃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나스닥, NYSE, 홍콩, 상해, 심천 등에 상장된 기업의 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총 2만7000개 이상 종목의 뉴스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저희 앱이 관심을 모으면서 지난해 우리금융의 '디노랩' 스타트업 발굴 프로그램과 언론진흥재단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저희 앱으로 뉴스의 전달 방식이 기존 소비자가 필요한 뉴스를 검색하는 방향에서 알아서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2015년 설립된 시스메틱은 당초 주식 시스템 트레이딩을 아이템으로 창업했다.

"당초 투자자와 알고리즘 개발자를 매칭해주는 것으로 출발했는데, AI 뉴스가 호응을 얻으면서 이 사업이 메인 이 됐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서강대 산학협력팀에서 인큐베이팅을 받았다. 노 이사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IT 회사에서 미국 제품을 한국에 현지화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SDL 런던증권거래소의 한국 지사장을 10년 넘게 맡아오다 시스메틱에 합류했다.

시스메틱은 향후 증권사에 해외 주식투자 고객이 많은 만큼 증권사와 제휴를

맺어 해당 회사 고객을 상대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또 지금까지는 소규모 엔젤 투자를 받는 데 그쳤지만, 사업 홍보 등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본격적인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뉴스 서비스가 아직은 '삼성전자', '코로나'와 같이 한 개의 키워드만 넣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삼성전자, 반도체 등과 같이 복합키워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 정상에 올려놓을 계획입니다. 또 최근 시작한 유료화를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노 이사는 뉴스 서비스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보다는 기술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구인·구직,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 AI적용 사업, 안경 이어 보석·뷰티까지 확대

이스트소프트 AI기술 소개·활용사례  
카메라 앱 누적 사용자 수 1635만명  
언택트 아이웨어 매장 실현 성공

이스트소프트가 e커머스·카메라·엔터프라이즈 분야에서 다양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출시해 AI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민 이스트소프트 이사(SW 사업본부장)는 8일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지능정보산업협회(AIIA) 7월 조찬 포럼'에서 '이스트소프트의 AI 기술 소개 및 활용 사례' 주제 발표를 통해 하늘을 인식해 그룹과 색감을 바꿔줄 수 있는 카메라 앱 '피크닉'의 누적 사용자수가 1635만명에 이르고 45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지 인식 기술로 객체 검출, 객체 분할 기술 등을 적용해 강아지 사진을 자동으로 모아주고 포즈·상황별로 분류해주는 반려동물 전용 갤러리 앱인 '포에버'를 소개했다.

조성민 이사는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이 찍는 사진의 80%가 강아지 사진 일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 앱의 누



조성민 이스트소프트 이사가 8일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지능정보산업협회(AIIA) 7월 조찬 포럼'에서 '이스트소프트의 AI 기술 소개 및 활용 사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채윤정 기자

적설치수가 3만364건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조 이사는 또 "사회사인 답아이의 안경 전문 쇼핑몰인 '라운즈'가 서울 강남역 인근에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이미지 인식 AI 기반 스마트 디바이스인 '라운즈 미러'를 도입했다"며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착용하고 거울만 봐도 해당 제품의 제품명, 가격, 리뷰 등 온라인 정보를 불러올 수 있어, 언택트 아이웨어 매장을 실현시켰다"고 소개했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답아이는 또 주얼리, 메이크업 등으로 이미지 인식 AI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며, 조만간 한 유명 면세점의 앱에서도 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매장도 경기도 판교2호점을 조만간 오픈한다.

이어서 조 이사는 기업용 메시지를 연계한 AI 메시지 판매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AI로 고객을 클러스터링(묶음)해 최적의 가격을 매기도록 추천해주는 솔루션을 개발해 한 회사에 2년간 적용한 결과,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식자재 유통업체에 벤치마크 테스트(BMT)로 자체예측 솔루션을 공급해 큰 성과를 얻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조 이사는 "식자재 유통업체에서 벤치마크 테스트(BMT)를 진행했는데, 물품명이 정해진 마스터코드로 주문하는 경우가 10%도 채 되지 않아 직원들이 매칭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AI로 과거 주문 데이터를 학습시켜 인덱싱되지 않은 내용이 오면 가장 유사한 추천을 해준다"며 "1000개 주문서를 수작업으로 품목 매칭할 경우 8시간이 걸리던 것을 딥러닝 방식으로 단 5초로 단축시켰다"고 설명했다.

## "금융 서비스 문의 AI에 맡기세요"

인포뱅크, 한국씨티은행 AI 챗봇  
상담지원 등 고객 어려움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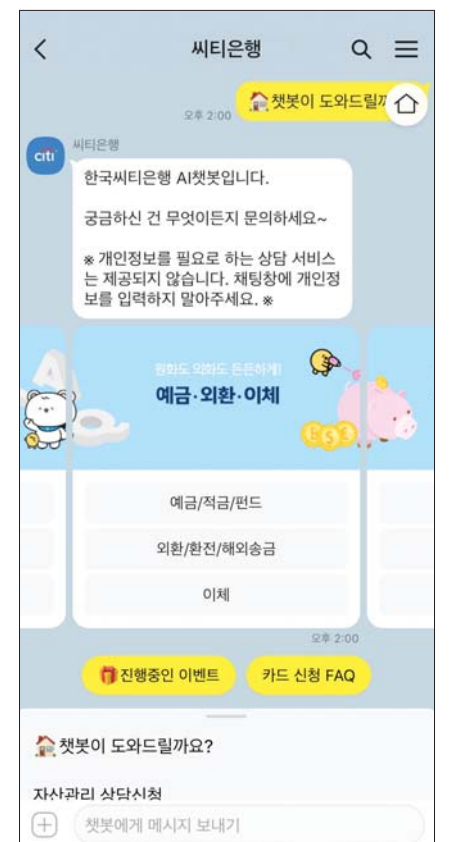
인포뱅크가 한국씨티은행의 금융 서비스 문의를 담당하는 인공지능(AI) 챗봇을 지난 3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챗봇은 지점 위치 같은 단순 문의부터 신규 고객을 위한 금융상품, 모바일뱅킹 사용 관련 안내까지 금융 서비스 전 범위를 아우르는 고객 문의에 대한 응대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이번 챗봇 도입은 단순 문의나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비대면 챗봇을 통해 응대함으로써 상담 지원에 따른 고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챗봇에서 인포뱅크의 'i메시지(iMessage)'의 사용자 이용 통계 분석 기술을 도입, 카테고리 별로 고객의 문의 빈도, 패턴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챗봇 품질 향상에도 신경을 썼다. i메시지는 오픈 채널 기업 메시지, 챗봇, 음성봇, 상담솔루션 등 종합적인 기업 커뮤니케이션 툴을 제공한다.

인포뱅크 i메시지 흥승표 대표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AI 활용과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반복적인 질문이



인포뱅크가 한국씨티은행에 공급한 챗봇 서비스 화면.

/인포뱅크

나 요청은 챗봇이 처리하고 사람이 직접 응대하는 문의는 줄이는 서비스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머지않아 챗봇의 업무의 범위가 전문적인 분야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metro경제

2020

## 100 PLUS FORUM

2020 메트로경제 100세 플러스 포럼

## 고령화시대 리스크관리와 재테크

7월 15일(수) 오후 2시~5시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 축사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세종시 국회의원)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 ◆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

## ◆ 기조강연

국내외 경제전망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 강연1

2020 주식투자 전략과 전망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사장)

## ◆ 강연2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 ◆ 강연3

공모리츠 투자와 전망  
(남궁 훈 신한리츠운용 사장)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장에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신분증 미지참 시 입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일 시: 7월 15일(수) 오후 2시~5시

장 소: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등 록: 이메일 및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접수(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당일 카드결제 가능

문 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 경북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 허용

베트남서 380명 입국 예정  
전원 코로나 검사·2주 격리  
농가서 고추·수박 등 수확

경북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한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인력 이동이 사실상 막히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한 농촌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오는 27일 베트남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380명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번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영양군 120여 농가에 배정돼 90일 동안 고추와 상추, 수박 수확을 한다.

영양은 고추 주산지로 재배면적이 1324ha에 이른다. 수박 106ha, 상추 51ha다.

계절 근로자 가운데 80% 이상이 고추 수확에 투입된다.

영양군은 이들이 입국 후 공항 검

역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전용 버스에 태워 자연휴양림 등 격리 시설로 옮긴다.

또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휴양림 등에서 2주간 격리한 뒤 이상이 없으면 농가에 배정한다.

농가에서도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일을 한다.

도내에서는 올해 상반기 8개 시·군에서 765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들어오는 영양을 제

외한 시·군은 모두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영양에서는 4월에 80명, 5월 이후 332명이 필요했으나 코로나19로 인원이 일부 줄고 입국 시기도 늦어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수확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되고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하다”며 “영양군에서 큰 노력을 기울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게 됐다”고 말했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metroseoul.co.kr

## 동네방네



상주 중앙시장

### 상주시 전통시장서 동행세일 행사

상주시는 관내 전통시장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를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동행세일은 경제 위기 극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 중심의 한국형 세일행사다. 전국적인 소비 붐 조성으로 내수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상주시도 관내 2개 시장이 참여하는 고객 사은행사와 시장별로 영수증을 모금해 일정 목표액 달성 시 보건소 및 소방서에 격려 물품을 전달하는 ‘의료진 덕분에’ 릴레이 행사를 실시한다.

/상주(경북)=김홍기 기자 gi2136@



### 인터뷰 배정철 KOMERI 신임 원장

1년간 노사갈등·횡령 등 내부혼란  
“청렴실천” 내부적 요구 응할 것”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KOMERI가 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3년간 한국조선해양기재연구원(KOMERI)을 이끌게 된 배정철 원장(57)은 연구원의 ‘정상화’와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지난 1년 가까이 KOMERI는 바람잘 날이 없었다. 노사갈등이 극심한 가운데 팀장급 직원의 해외출장비 횡령판결이 겹치면서 그간 쌓아온 명성에 흠집이 났다. 그런 만큼 지난 4월 원장 공모 이후 연구원 안팎의 시선은 새로 선임될 수장에게로 쏠렸다.

최근 취임식을 마친 배 원장은 어수선한 연구원 내부를 다잡고 선박기자재 업계 지원을 제대로 해낼 적임자로 꼽힌다.

해양대학교해사통신공학박사

학위를 받고 기업체 경험은 물론 지난 2006년 KOMERI에 입사해 요직을 두루 거치는 등 산학연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연구원 책임자로서뿐 아니라 구성원 가운데 최연장자로서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 내부 혼란상황을 해소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하는 그는 “노사상생과 투명경영, 청렴실천이라는 내부적 요구에도 최대한 빨리 응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원장 체제의 KOMERI호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업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야간이나 주말에도 시험을 가능하도록 긴급시험트랙을 운영하고 근거리 밀착형 기업수탁 지원도 강화하려 한다. 특히 지식경영 플랫폼을 구축, 유관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기업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KOMERI의 위상에 걸맞는 기술개발에도 힘쓸 방침이다. 최근 조선기자재 분야는 친환경·스마트 선박기자재에 대한 연구가 핵심인데 관련 분야 산학연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한편 학연 협동과정도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허의원 기자 bsmorning@

### 쿠팡-경북도

## ‘힘내요 대한민국 경북 2차 기획전’ 진행

5억 규모 즉시 할인 혜택 제공  
상품 2000여종 최대 56% 할인

쿠팡과 경상북도가 또 한번 협력한다. 쿠팡은 ‘힘내요 대한민국 경북 2차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힘내요 대한민국’은 지자체가 지원한 예산 규모만큼 고객에게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쿠팡은 지자체의 지원과 동일한 규모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기획전이다. 경북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쿠팡과 지자체가 협력해 전방위 지원을 펼친다.

이번 기획전은 경상북도의 지원으로 5억 원 규모의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고객은 151개 경북 지역 업체의 상품 2천여 종을 최대 56%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여기에 경북 지역 상품이 고객에게 더 잘 노출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쿠팡이 추가로 5억 원 규모의 마케팅, 광고 활동을 지원한다.

지난 4월 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힘내요 대한민국’ 경북 1차 기획전에 참여한 업체의 매출은 전년 대비 평균 233% 증가했다. 1차 기획전에 참여한 경북 기업의 32%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곱팡이 제거제와 배수구 클리너 등 천연소재 기반의 생활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오가닉 K는 지난 4월 1



쿠팡은 8일 ‘힘내요 대한민국 경북 2차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차 기획전에서 전년 동기대비 매출 1,802%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다.

김대송 오가닉 K 대표는 “힘내요 대한민국에 참여해 코로나19로 둔화했던 매출 상승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세제류 상품은 대기업 브랜드가 많아 중소기업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쉽지 않은데, 쿠팡과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윤혜영 쿠팡 리테일 부사장은 “힘내요 대한민국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며, “우수한 품질을 갖춘 중소기업의 제품이 쿠팡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 4월부터 7개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진출 및 매출 확대를 돕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6월부터 시작한 ‘힘내요 대한민국’ 2차 기획전은 2020년 연말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전남지역 ‘먹노린재’ 전년比 19.8% 급증

(월동해충)

전남도 농업기술원  
“벼 재배농가, 적기 방제 중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지난 겨울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월동해충인 먹노린재 발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벼 재배농가에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8일 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먹노린재가 도내 21개 시군 7천 797ha(벼 재배면적의 5.2%)에서 발생해 지난해보다 19.8%

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먹노린재는 낙엽속이나 잡초 밑에서 겨울을 보낸 뒤 모내기 시기에 논으로 이동해 벼의 잎과 줄기를 해치며, 벼 줄기 속 어린이삭을 흡즙해 반점미의 피해를 주고 있다.

먹노린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답 이동 최성기인 7월 상순에 논 두렁과 논 가장자리 위주로 약제를 살포하며, 벼 어린시기 논바닥까지 물을 댄 뒤 살포하면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경북도, 일자리 창출 위해 888억 투입

경북형 희망일자리 사업 운영  
실직자·청년 등 참여 대상자 확대

경북도가 공공분야 단기일자리 2만여개를 창출하기 위해 888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극복 경북형 희망일자리’ 사업을 올해 말까지 펼친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1개월 이상 실직자, 무급휴직자, 청년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모든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확대됐다.

생계비 지원이 되는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공무원 가족 등



경북도청 전경

은 참여가 제한된다.

경북형 희망일자리사업은 ▲희망가꾸기 사업 ▲경북 클린안심 사업 ▲경북 일자리 희망인턴 프로그램 ▲경북 내고장 생활안전 지킴이 ▲학교도우미 지원 사업 ▲교통안전 지킴이 프로그램 등으로 이뤄진다.

/경북=문봉현 기자

## 구례학사, 대림동에 새 등지

전남 구례군의 인재 양성 요람인 구례학사(사진)가 서울 시 대림동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8일 구례군에 따르면 서울에 운영 중인 구례학사를 기존 강서구 화곡동에서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이전했다.

대림 구례학사는 대지 416㎡, 연면적 1481.09㎡의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로 지하철 2호선·7호선 대림역에서 도보로 7분,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주요 대학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원룸형으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인덕션, 싱크대, 전자레인지, 침대, 책상, 의자, 욕실 등 대학생들이 생활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입사정원은 1인 1실 24명으로 기존 입학생 외 10명을 오는 24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전남=양수영 기자







[산업] 최태원 SK회장 “지성 쌓아 사회환원 변화 선도를” 08



Life

[라이프] ‘동행세일’ 막판스퍼트 주말 유통가 ‘큰 장’ 선다



# 서울시, 2.6조 투입 ‘그린뉴딜’... 경제·기후 위기 극복한다

2035년부터 전기·수소차만 등록 친환경 정책으로 2.6만개 일자리 창출

5년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등 서울, 탄소배출 제로 도시 만들 것

서울시가 탄소배출 제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35년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만 등록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내연기관차의 사대만 통행을 제한한다. 또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제로화하고 건물온실가스총량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판 그린뉴딜은 탈 탄소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 녹색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의 생존권을 지키는 절박한 심정으로 화석문명의 시대를 넘어 지속가능한 시대



박원순 시장이 8일 오전 시청에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의 문을 열겠다”고 말했다.

시는 2022년까지 2조6000억원을 투입해 ▲건물 ▲수송 ▲도시 숲 ▲신재생 에너지 ▲자원 순환의 5대 분야에서 친환경 정책을 펼쳐 2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우선 시는 관용차량과 시내버스, 택시를 전기·수소차로 전면 교체한다. 2035년부터는 친환경차만 등록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녹색교통지역 내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진입을 막는다. 나아가 30년 뒤인 2050년에는 내연기관 차량 운행 제한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제로화한다. 자원회수시설을 확충, 처리 용량을 늘리고 25개 전 자치구에 ‘리엔업사이클플라자’를 설치한다.

시는 2025년까지 자원회수시설 1곳(시설규모 500t/일)을 더 만들고 기존 4

개쓰레기소각장(강남·노원·마포·양천)에서 하루 약 580t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전량을 직매립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제로화하기 위해 쓰레기 소각량을 늘리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친환경 자원회수시설은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나오는 열을 다시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탄소 발생량을 줄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68.2%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민간 건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제로에너지건축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에너지 성능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제로에너지건축 시용적률 상향, 취득세·재산세 감면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시 소유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건물온실가스총량제를 시범 운영하고 2022년부터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 시작으로 민간 분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건물온실가스총량제는 매년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감축한 건물엔 인센티브를, 초과 배출한 건물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이밖에 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약 85만㎡ 규모의 도시 숲을 신규로 조성하고 모든 공공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무분별한 생태환경 파괴로부터 촉발된 코로나19라는 비극은 전 인류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그린뉴딜이 화려한 청사진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서울시, 음압구급차 2대 추가배치... 신속 대응

서울시내 동서남북 4개 권역 1대씩 구급대원 현장활동 시간 단축 가능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음압구급차 2대를 추가로 배치해 총 4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음압구급차는 내부를 음압 상태로 만들어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진 구급차로, 강동·구로·동대문·서대문소방서에 배치됐다. 이로써 서울시내 동서남북 4개 권역에서 음압구급차를 운영하게 됐다고 시 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추가 배치된 음압구급차.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음압구급차가 있으면 감염병 상황에서 119구급대원의 현장활동 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의심 신고에 일반구급차가 동원될 경우 귀소 후 구

급차를 소독해야 해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119대원의 현장 활동에 걸리는 시간은 구급출동에서 처리완료까지 1건당 평균 42분(작년 기준)이다. 코로나19의 심 출동 시 소요되는 시간은 58분으로 평소보다 16분 더 길며 차량을 소독하는데 1시간이 추가로 걸린다.

이날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의심환자 이송 건수는 6월 1주차 102명에서 2주차 85명, 3주차 66명, 4주차 74명, 이달 1주차 59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확진자 수는 10명, 34명, 43명, 20명, 10명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 서울사랑상품권 1800억 규모 추가발행

13일부터 7~10% 할인 판매

서울시는 긴급 편성한 3차 추경을 통해 서울사랑상품권을 총 180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 13일부터 7~10% 할인된 금액으로 12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자치구별로 발행하는 모바일상품권으로,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기본 할인율은 7%이며, 도봉·노원·은평·서대문·동작·관악·강남구 등 7개 구에서는 자체 재원으로 10% 특별 할

인을 해준다.

시는 상품권 추가 발행 개시일에 해당 앱 동시접속자 수 폭주로 시스템 장애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권 판매 일정을 분리하고 운영 서버를 확장했다.

이전에 발행한 서울사랑상품권은 10~15% 할인 판매 등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 25개 자치구 중 24개 구에서 조기 완판됐다.

사용 가능한 가맹점도 계속 늘어 지난 4개월 사이 신규 가맹점이 7만3000여개 늘었다. 7월 현재 24만9000여개의 가맹점에서 제로페이와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 고양시 행주산성 역사공원 언택트관광지 100선 선정

고양시 ‘행주산성 역사공원’이 한국관광공사와 7개 지역관광공사가 함께 선정한 ‘언택트 관광지 100선’에 뽑혔다.

‘언택트 관광지 100선’은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 개별 여행 및 가족단위 테마 관광지, 야외 관광지, 자체 입장객 수 제한을 통해 거리두기 여행을 실천하는 관광지 등의 기준을 통해 최종 선정됐다.

행주산성 역사공원은 서울의 한강에서는 볼 수 없는 한강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친수공간(빨랫돌 머리)’, 북한 무장공비의 침투를 막기 위한 철책이 시작됐던 지점인 ‘군 초소 포토존’ 등 이색적인 관광 콘텐츠가 풍부한 곳이다. /안성기 기자 ask9990@

# 한산한 인천공항, 안내·경고방송만 ‘시끌’

경고대상 없는 방송 여전... 소음공해

지난 6일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여행객이 발길을 끊은 출국장은 한산했다. 사람도 차도 거의 볼 수 없는 출국장 커브사이드에는 1분이 멀다하고 스피커를 통해 경고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CCTV 단속중입니다.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주정차대행 이용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처분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 제2여객터미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한적한 커브사이드에 적막을 깨고 경고방송은 오히려 1터미널보다 더 크게 들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에서 운영하는 항공정보포털에 따르면 7월 첫째주 공항이용객은 지난해 일평균 약

19만명에서 일일 7200명 수준으로 96% 이상 급감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월 이후에는 시설주차대행업체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다. 인천공항주차협조조합 관계자는 “해외여행객이 급감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문을 닫았고 종사하던 사람들도 다른 일을 찾아 공항을 떠난 상황”이라고 했다.

상황은 이런데 여객터미널 출국장의 안내 경고방송은 6개월째 그대로다. 여객터미널에서 근무하는 한 공항근무자는 “주차하는 사람이나 불법주차대행을 하는 사람 등 경고의 대상이 없는데 경고 방송을 계속하는 것은 소음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교통서비스팀 담당자는 “지안내방송의 운영에 간격을 늘리거나 방송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창근 기자 mirex@

오늘의 날씨

7월 9일 (목) 음력 : 5월 19일

수도권 날씨 33~21°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20/32, 동두천 19/32, 가평 20/32, 파주 19/32, 서울 21/33, 양평 20/32, 인천 21/29, 수원 21/32, 용인 21/31, 평택 20/32

해돋이 05:19 | 해질 19:5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SAMSUNG

신혼테리어를 완성하는  
**삼성 신혼가전과 함께**  
 당신은 **예쁘게만 사세요**



| 감각적인 공간을 연출하는  
 디자인 TV **The Serif**

| 인테리어에 맞춰 컬러도,  
 소재도 원하는대로 **BESPOKE**

| 거실에 가구처럼  
 잘 어울리는 디자인 **무풍에어컨**

디자인이 고민되는 당신의 마음을 잘 아니까

우리의 첫 가전  
**삼성 신혼가전**

이제는 가전을 나답게.